

제7차 한미교회협의회

“화해와 일치의 희망을 일구어 내자”

The 7th NCCCUSA - NCCK Consultation

“Reclaiming Hope Towards Reconciliation and Unity”

2021. 6. 25. 09:00-12:00(서울)

20:00-23:00, June 24(EST), 202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목 차 CONTENTS

일정	p.5
배경	p.6
환영사	p.8
치유와 화해를 위한 개회예배	p.9
주제강연 1	p.19
치유되고 화해된 한반도를 위한 한미교회 에큐메니칼 연대 - 이홍정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특별 강연	p.33
- Ms. Angela Kerwin (미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 대행 및 한국국장)	
주제강연 2	
· “화해와 일치의 희망을 일구어 내자” - Mr. Jim Winkler (NCCCUSA 총무)	p.34
· 갈등 그리고 낡은 이데올로기의 붕괴 - Rev. Paul Tc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p.40
전체회의 발언	p.43
공동선언문	p.50
폐회사	p.56
참가자 명단	p.118

목 차 CONTENTS

Schedule	p.57
Background	p.58
Greetings	p.60
Worship for Healing and Reconciliation	p.62
Keynote Presentation 1	p.71
The Ecumenical Solidarity of Churches in Korea and USA For a Healed and Reconciled Korean Peninsula - Rev. Dr. Lee, Hong-jung, General Secretary, NCKK	
Special Presentation	p.89
- Ms. Angela Kerwin, Office of Korean Affairs Director and Acting 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Keynote Presentation 2	
· "Reclaiming hope towards reconciliation and unity"	p.90
- Mr. Jim Winkler, General Secretary, NCCCUSA	
· Conflicts and Old Ideological Ruins - Rev. Paul Tc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p.97
Plenary Discussion	p.101
Joint Statement	p.109
Closing Remarks	p.117
Participant List	p.118

일 정

2021년 6월 25일(서울) 09:00

- 09:00 – 09:25 **치유와 화해를 위한 개회예배** (노근리 가족과 함께)
- 설교: Rev. John Dorhauer, 인도: 정병주 목사
- 09:25 – 09:40 **인사** - 이경호 주교 (NCKK 회장), Ms. Catherine Gorden (PCUSA)
참가자 소개 / 사회: 신승민 목사
- 09:40 – 10:00 **주제강연 1:** 이홍정 목사 (NCKK 총무)
/ 사회: Rev. Bruce Woodcock
- 10:00 – 10:30 **특별강연:** Ms. Angela Kerwin (미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
대행 및 한국국장) / 사회: Rev. Bruce Woodcock, 논찬: 이기호 박사
- 10:30 – 10:50 **주제강연 2:** Mr. Jim Winkler (NCCCUSA 총무),
Rev. Paul Tc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 사회: 배현주 목사
- 10:50 – 11:30 **질의응답 및 전체회의** - 발언: Mr. Peter Prove (WCC),
Rev. Peter Noteboom (CCC), Rev. Levi Bautista (UMC),
Dr. Derek Duncan (Global Ministry),
임준형 사무국장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연대),
최수산나 부장 (한국YWCA연합회) / 사회: 배현주 목사
- 11:30 – 11:50 **공동선언문 채택** - 발언: Ms. Patti Talbot (UCC),
김희현 박사 (PROK), 이은주 목사 (PCUSA) / 사회: 신승민 목사
- 11:50 – 12:00 **폐회사:** 정희수 감독 (NCCCUSA), 강용규 목사 (NCKK)
폐회기도: 정희수 감독

배 경

1970년 “동북아시아의 미래와 딜레마”를 주제로 제1차 한미교회협의회가 개최되었다. 1차 협의회 이후 양 교회는 6차에 걸쳐 협의회를 열었고, 공동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공동의 선교 과제를 확인했다. 또한, 양 교회 구조를 넘어 WCC와 CCA가 참여하는 다자간 선교 협력 논의의 틀을 형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70년대, 한미 교회가 함께 다룬 주요 이슈는 한국의 민주화, 인권 문제, 그리고 미국 내 시민권 운동 등이다. 1980년대, 양 교회는 한국 인권과 민주화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1986년 협의회 성명)은 분단체제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하여, 양 교회는 한반도 화해, 평화, 통일에 공동의 선교 활동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특히, 1986년 제4차 한미교회협의회 직후 열린 미국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NCCCUSA) 총회에서 NCCCUSA는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한반도 분단에 책임이 있음을 회개하며 치유와 화해, 통일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정책성명서를 채택했다.

1984년과 1986년, 양 교회는 캐나다교회, 세계교회협의회와 함께 한-북미교회협의회로 모였다. 1997년 협의회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그리스도교련맹, 미국, 그리고 WCC, CCA, 로마가톨릭교회, 정교회가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뉴욕에 모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전과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특별히, 평화 교육에 힘써 민간교류를 선도하고, 여성의 참여를 높이고 에큐메니칼 자원을 공유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신앙과 상호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선언했다.

2003년 워싱턴DC에서 열린 지난 한미교회협의회에서 양 교회는 1997년 협의회에서의 논의와 권고를 재확인했고, 교회 내부의 증오와 분열의 벽을 허물고 십자

가를 통해 우리를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겠다고 서약했다.

최근 두 협의회는 2016년 NCCK가 미국에서 진행한 평화협정캠페인과 한국교회 88선언 30주년 기념 국제협의회에서 함께 일했고, 협의회 정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NCCCUSA와 NCCK는 지난 해 6월 워싱턴DC에서 제7차 협의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개최가 불가능해졌고, 올해 6월 24일(25일) 온라인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목적:

- 1. 한-미 교회의 선교 여정 회고**
- 2. 한-미 교회 상황과 선교 과제 공유**
- 3. 조 바이든 정부 시기의 공동 액션 플랜 모색**

일시/장소: 6월 24일 20:00-23:00(EST), 6월 25일 09:00-12:00(서울)

주제: “화해와 일치의 희망을 일구어 내자”

제7회 한미교회협의회 환영사

제7회 한미교회협의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인류는 코로나 19로 매우 힘든 싸움을 하며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함께 만나 거룩한 친교를 나누지 못해 아쉬움이 큼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런 방식으로나마 소통하며 평화를 일구는 일에 함께 협력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이 되는 해입니다. 71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전쟁의 아픔과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분단으로 인해 겪은 사회적 갈등과 어려움은 너무도 컸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식되고 하느님의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미국교회가 함께 힘을 모으고 노력하는 일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고,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한반도의 화해와 일치 그리고 평화가 증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남북대화, 북미 간의 대화를 촉구하여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길 원합니다. 이번 회의가 이런 일들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뜻 깊은 회의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실무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 6월 2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이경호 주교

노근리 가족과 함께하는 치유와 화해 예배

인도: 정병주 목사 (NCKK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기원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세 번의 징소리)

입장

(징소리가 울리는 동안 NCKK 대표단이 평화의 상징을 들고 입장합니다.)

십자가: 평화를 상징합니다.

노근리 사진: 쌍굴터널을 보며 노근리 사건 희생자와 유가족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분단된 한반도의 치유와 화해를 소망합니다.

평화의 인사

오일영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 총무)

여는 찬송

주 믿는 형제들 (221장)

1.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2. 하 나 님 보 좌 앞 다 기 도

사 드 컴 은 천 국 의 교 제
드 리 니 우 리 의 믿 음

갈 소 으 니 참 주 종 은 친 교 라
소 망 이 주 안 에 하 나 라

공동 기도 (영어로)

인도자: God of creation, you formed this world and all life in it to thrive in community together. We gather now, separate yet connected across thousands of miles by your Spirit. 창조의 하나님, 당신께서는 이 세계와 모든 생명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번영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였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당신의 성령을 통해 수천 마일을 넘어 연결되었습니다.

회중: God of creation, bind us in your love.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사랑 안에서 하나되게 해주십시오.

인도자: God, you gave your people shelter, homes, and communities in diverse habitats throughout the planet so that we could join you in caring for this creation. 하나님, 당신께서는 지구 곳곳에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피난처와 집, 그리고 공동체를 주셨고, 우리는 당신의 창조를 돌보는 데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중: God of creation, bind us in your unity.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일치 안에서 하나되게 해주십시오.

인도자: We took these communities and created divisions, separating your people from one another. We turned your harmony into discord. 우리는 이 공동체를 빼앗고 당신의 백성을 서로에게서 분리시키며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루신 조화를 불화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회중: : God of creation, bind us in your peace.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평화 안에서 하나되게 해주십시오.

인도자: God, call us back into your harmony. May your Spirit reconcile us to each other and to you.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조화 안으로 다시 불러 주십시오.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가 서로, 그리고 당신과 화해하게 해주십시오.

회중: God of creation, bind us in your reconciliation.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화해 안에서 하나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Amen.

성서 봉독

한국어: 인은영 사관 (구세군한국군국)

영어: Rev. Kurt Esslinger (Ecumenical Forum Korea Coordinator)

설교

Rev. John Dorhauer (President, UCC, USA)

<노근리 학살 피해자들을 위한 치유식>

치유의 노래

국악선교단 예향 (향린교회)

"평화가 있기를"

치유의 기도: 노근리

하성웅 목사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총무)

1950년 한국전쟁 당시 400여 명의 민간인이 주한 미군에 의해 학살당했던 악명 높은 곳.

나는 한국에 파견된 다섯 명의 ‘평화를 위한 재향 군인회’ 대표단 중 한 사람이었다.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농민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었다.

우리는 은퇴한 한국군 대장을 포함한 호스트들과 함께 등글게 서서 노근리 마을을 가로지르는 기차 터널의 입구를 내려다본다. 총알이 박혀 있다.

그는 우리가 이곳에 대해 알기를 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꽃과 그림들이 있는 작은 제단은 60년 전 이곳에서 죽은 아이들과 어머니들을 보여준다.

Ms. Patti Talbot (캐나다연합교회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 팀 리더)

열 명 정도의 사람들 중 혼자 숨죽여 울고 있는 여인이 있다.

아홉 살 소녀였던 그녀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을 공포 속에서 지켜보았다. 기관총과 비행기에서는 마을 입구와 기차 터널을 공격하는 총알들이 마구 쏟아졌다.

우리는 그 끔찍한 일들에 대해 알고자 했고 그녀는 부드럽고 호소력 있게 이야기했다. 죽음의 소음과 비명 속에서, 부모와 형제들은 모두 죽었다. 소녀는 일어나 죽은 가족들을 살펴보지만 빠져나온 그녀의 왼쪽 눈은 손 안에 있었다. 60년이 지난 지금, 나는 마치 사과하듯, 이 아홉 살 소녀를 품에 안는다.

(출처: 톰 케네디의 ‘노근리’)

치유의 기도: 한반도

한주희 신부 (대한성공회)

오랜 분단과 전쟁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는 한국인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분단현실은 사람들에게 너무 오랫동안 불신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 현실은 계속되는 고통이며 우리는 세계교회의 친교 속에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합니다. 주님, 한반도의 평화는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통해 세계의 평화를 더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양다운 선생 (한국YMCA전국연맹)

이제 우리는 70년의 한국전쟁을 기억하고 평화조약과 남북한의 화해를 지원하기 위한 세계교회 캠페인에 동참합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해방과 자유를 위해 다시 힘을 모으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축복해주시옵시요.

매일 분단되어 갈라진 생활을 한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주님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눈물을 너무 오래 흘렸으며, 갈라진 가족과 친구들을 그리워하며, 다시 만나길 원하며 흘린 그 눈물이 세계를 적시고 있습니다.

이은주 목사 (PCUSA 동아시아지역담당)

우리는 남북의 지도자들이 냉전을 멈추고 다시 하나됨의 비전을 가지고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북과 미국의 지도자들이 만나 화해의 꿈을 나누는 것을 보면서 한반도 평화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중재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비극과 대립이 아닌 화해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분단을 끝내고 서로 사랑하는 표식으로 십자가를 내세우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와 화해를 위해 힘쓰는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출처: WCC 평화의 빛 정희수 감독 기도문)

응답 찬양

O, Lord Hear My Prayers (떼제)

O Lord, hear my prayer. O Lord, hear my prayer.

When I call, an - swer me. O Lord, hear my prayer. O

Lord, hear my prayer. Come and lis - ten to me.

이제 노근리를 뛰어넘자!

오늘은 한국전쟁 발발 71주년인 날이자 노근리사건 발생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미 양국의 교회협의회가 노근리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근리평화예배’를 드린 것에 대해 피해자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전쟁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UN군이었습니다. 특히 미군의 역할과 도움은 매우 컸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 그리고 한국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전쟁 기간 중 희생된 미군 전사자가 54,246명에 이릅니다. 참전 미군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후에도 미국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서 한국이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전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노근리사건과 같은 비인도적인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노근리사건은 한국전쟁 개전 한 달 후인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4박 5일 동안 발생한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약 400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었습니다. 노근리사건 당시 나의 선친은 5살이던 아들과 2살배기 딸을 잃었고 그의 아내마저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저희 선친은 평생을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늘 생각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선친은 1994년도에 노근리사건의 진실을 담은 실화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근리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9월말, AP가 끔찍한 인권유린사건인 노근리사건의 진실을 보도함으로써 노근리사건은 국제적으로 크게 이슈화되었고, 여론이 비등하자 한미양국 정부는 1년 3개월 동안 진상조사를 했습니다. 진상조사를 마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한국 국민과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약 400만 달러의 예산으로 희생자 추모탑 건립과 유족자녀 장학금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추모사업은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정부가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발생한 사건들 중 노근리사건에 대해서만 진상조사를 했고,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사건 피해규모도 어느 정도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도 미국정부는 한국전쟁기간중 미군에 의해 발생한 불특정 사건들의 전체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추모탑 건립과 유자녀 장학금 제공을 고집했습니다.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은 다른 미군 관련 사건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권리를 막을 수는 없었기에, 미국정부에게 노근리사건 피해자만을 위한 추모사업 추진을 요청하였으나 끝내 거절했습니다. 결국 2006년도에 미국정부는 자신이 책정했던 예산 400만 달러를 미국 국고로 회수하였고, 지금까지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단 1달러도 쓴 적이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 저는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국전쟁 초기 상황이 매우 급하게 돌아가자 미 제24보병사단이 한국에 파병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군사훈련도 안 되고 군사장비도 부족했던 미군은 7월 5일, 오산 죽미령에서 벌어진 북한군과의 첫 전투의 패배를 시작으로 평택·안성전투, 천안전투, 금강전투, 대전전투 등에서 2-3일을 버티지 못하고 연전연패했습니다.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방어전선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영동군 관내 전투에서는 달랐습니다. 영동군 전투에 투입된 미제1기병사단, 제25보병사단은 영동읍, 황간면, 상용리 등지에서 무려 8일동안 방어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영동군 방어전투에서 약 900명의 미군이 희생되었지

만 북한의 남침을 성공적으로 지연시켰으며 이로 인해 후방에서는 한국전쟁의 전환점이 되는 낙동강 전선을 안정되게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영동에서조차 금새 무너졌다면 낙동강 전선 또한 버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영동전투의 역사적 의의와 이곳에서 희생된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노근리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이곳 영동전투에 참여했던 미군들을 인터뷰한 자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 참전했던 미군들 또한 오랫동안 전쟁의 상처로 인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노근리사건을 자행한 부대는 제1기병사단이었는데요. 그 부대 소속의 델로스 플린트라는 병사의 증언이 기억납니다. 그는 “많은 전우들이 전쟁터에서 죽는 것을 본 탓에 나는 여전히 과거의 전쟁터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라고 말했고, 그는 평생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술과 약에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저는 참전 미군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야 할 대상이 저희 노근리사건 피해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71주기를 맞이하여, 우리가 노근리사건을 다시 되돌아보는 것은 그 상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것의 치유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기 위함입니다. 노근리의 상처를 얘기하는 것은 상처 입힌 자들에 대해 증오하고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회복하기 위함이며 회복해야 할 사람은, 노근리 사건 희생자만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청년 미군들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말씀처럼 저는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의 길로 나가기 위해 함께 한미 양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던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약속했던 추모 사업을 민주당

정권인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바람직하게 되돌리는 것도 될 수 있을 것이며, 영동 지역에 참전 미군들을 기억하는 추모탑을 건립하는 일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유족들은 작년에 있었던 노근리사건 70주년 기념식을 통해 영동지역에 참전미군 추모비를 세우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한미 양국이 서로 힘을 합쳐서 노근리의 상처를 뛰어넘어 치유와 화해의 길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는 제2의 제3의 노근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남북분단이 극복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도

Rev. John Dorhauer

주제강연 1

치유되고 화해된 한반도를 위한 한미교회 에큐메니칼 연대

이 홍 정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들어가는 말

01. 우리는 오늘 한반도 분단과 코로나19 감염병이 초래하는 생명안전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한반도에서 전개된 미완의 해방 76년, 끝나지 않은 전쟁 71년의 역사를 아프게 기억하며, 한미교회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한미교회협의회를 통하여 변화하는 시대의 징조를 바르게 깨닫고, 복음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교회의 공동의 담론과 실천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개된 반 생명적이며 반 평화적인 모순의 역사를 관통하며 솟아오르는, 자주와 독립, 해방과 평화를 향한 민(民)의 역사 변혁의 의지에 응답하고자 한다.

02. 특별히 오늘은 71년 전, 한국전쟁이 일어난 날이다. 세계냉전체제의 최전선에서 벌어진 냉전시대 최초의 열전이었던 한국전쟁 3년은, 전쟁과 국가폭력이 초래하는 현실적 폐해를 웅변적으로 보여주었다. 한국전쟁은 생명 죽음의 참상과 트라우마, 분단체제의 고착과 냉전문화의 확산을 야기시키며 반 평화의 상징이 되

었다. 한국전쟁은 분단체제 하에서 남과 북이 체제경쟁을 하며 자기충족적 사회를 형성해가는 과정에, 한반도에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냉전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정치와 문화를 구조화하는 근간이 되었다. 한국전쟁이 정전상태로 지속되면서 분단과 냉전의 사회심리학이 내면화되었고, 상호불신과 적개심은 철옹성이 되어 평화를 향한 상상력을 퇴화시켰다. 한국전쟁은 평화의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결정적 장애가 되었고, 한반도의 민(民)은 지금도 지난 20세기 세계냉전체제 하에서 ‘기획된’ 분단과 전쟁의 역사의 희생자로 살아가고 있다.

미완의 해방, 끝나지 않은 전쟁: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

03. 한민족은 제국주의의 파도가 최고조에 이른 19세기 이래,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각축장으로서 한반도가 지닌 지정학적 운명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오고 있다. 1910년 이후 36년간의 일제강점기를 거쳐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었으나, 미국과 구 소련에 의해 형성된 세계냉전체제의 희생양이 되어 비극적인 민족분단을 맞이하였다. 1948년에는 남과 북에 세계냉전체제를 대변하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되었고, 1950년에는 예견된 한국전쟁이 일어나므로, 한반도에 분단냉전체제가 고착화되었다. 한반도의 민(民)에게 1910년 이후 지난 110년의 현대사는, 생명을 담보로 진행된 평화를 향한 ‘고난의 행군’이었다. 우리는 이 고난의 행군의 과정에 한반도의 운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온 미국을 ‘양날의 칼’로 기억한다.

04. 19세기 말 신흥제국으로 아시아 진출을 도모한 미국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벌어진 청일전쟁(1894년)과 러일전쟁(1904년)의 최종 협상을 중재하였다. 1905년에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필리핀을 미국의 식민지로 용인하는 미일합의를 이끌었다. 일본의 침략전쟁과 미국의 외교 개입으로 한국은 1905년에 일본의 명목상의 보호국이 되었고, 1910년에는 강제 병합되었다. 미국은 태평양 전쟁을 끝내기 위해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다. 소련은 8월 8일에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한 후, 만주와 한반도를 향해 빠르게 남하하였다. 미국은 일본의 패전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전쟁에 참전한 소련이 만주와 한반도 전체를 점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8월 10일에 한반도에서 미국 점령지역을 규정하기 위해 2명의 젊은 장교, 딘 러스크와 찰스 보네스틸을 파견하였다. 그들은 짧은 통보 기간으로 인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내셔널 지오그래픽 지도를 사용해 38도 선을 확정했다. 38도 선 분할은 한반도를 거의 절반으로 나누면서도, 수도 서울을 미국의 통제 하에 둘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러일전쟁 직전에 일본과 러시아가 38도선, 39도선을 주장하며 한반도의 분할 점령을 협상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를 분할 점령했고, 한민족 1,600만 명은 남쪽 미국 구역에, 900만 명은 북쪽 소련 구역에 강제로 편입되었다.

05. 1948년 5월 10일, 유엔 감시 하에 미국이 점령한 남쪽에서만 총선거가 시행되었다. 반공주의자인 이승만이 선거에서 승리했고, 김일성은 조셉 스탈린에 의해 북조선 지도자로 임명되었다. 분단된 한반도에 세워진 ‘두 개의 한국’은,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며 북진통일과 조선반도 해방을 주창하며 대립하였다. 한반도 분단을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식한 양측의 군대는, 38도선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유혈 충돌을 일으켰고, 1950년 6월 25일에 북조선 군대가 남한을 침략하면서 한국전쟁은 촉발되었다. 미국은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남한을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유엔의 결의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을 파견하므로 한국전쟁에 개입하였다.

06. 3년 전쟁은 약 삼백만 명의 전상자와, 냉전 이데올로기에 의해 작동한 국가폭력과 집단살해로 인한 증오를 남긴 채, 정전협정 체결로 중지되었다. 정전협정 체결 3개월 후에 평화조약으로 전환하기로 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1953년 10월 1일에 분단냉전군사동맹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한국과 미국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을 당할 경우에 상호원조를 약속하며, 미

군의 남한 내 주둔을 허용하고 있다. 이 조약은 한국이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명시하므로 ‘신식민지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정전협정과 상호방위조약의 체결로 한미동맹체제, 이른바 ‘판문점체제’가 탄생된 것이다. 일본은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토대로, 한국전쟁기와 그 이후에 특수를 누리며 경제적 수혜국으로 부상했다. 평화조약이 체결된 직후, 미국과 일본은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므로 미일동맹체제, 이른바 ‘샌프란시스코체제’가 탄생되었다.

07. ‘샌프란시스코-판문점 체제’는 ‘소극적’ 평화체제로, 냉전체제 양쪽 모두에게 다양한 형태의 구조적 폭력을 제도화했다. 이 체제는 자신들의 내부적 패권 유지를 위해 남북간의 긴장을 고조시켰고, 한반도에서 민(民)의 생명안보를 침해했다. 분단냉전 상황에서 남북 정부는 국민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체제 보호를 명분으로 자국민에 대해 폭력을 가하는 국가폭력의 주범이 되었다. 남북의 민(民)은 적대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왜곡된 냉전의식과 문화를 내면화하므로, 서로를 향해 적대적 이방인이 되었다. 분단과 냉전은 한반도를 종말론적 규모의 대량살상무기가 밀집된 세계군산복합체의 수렁에 빠뜨렸다. 오늘날 동북아시아에서 샌프란시스코-판문점체제, 즉 한미·미일 동맹체제가 북·중·러 군사협력체제와 형성하고 있는 신 냉전적 패권구도는, 냉전시대에 형성된 ‘동맹의 덫’에 걸려 볼모가 된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미동맹, ‘양날의 칼’: 5.21 한미정상회담과 신 냉전동맹체제의 강화

08. 지난 5월 21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이 땅에 분단과 전쟁을 기획하고 강제한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로 뒤얽힌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의 장벽에 가로막힌 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2018년에 전개된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선언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분단과 냉전을 극복하고 평화와 상생, 통일의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민족의 꿈이, 여전히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진화하는 현실주의 국제정치의 그물에 걸려 있는 현실을 실감하였다. 한반도의 민(民)의 평화라는 관점에서 상호 모순된 결정들이 혼재하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미국의 패권적 이해관계가 주도하는 한미관계의 반 평화적 현실을 재확인하게 된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한미동맹은 여전히 ‘양날의 칼’로 작동하고 있다.

09. 이번 한미정상회담 기간 중에 한국전쟁에서 중공군과의 전투에 참여한 참전용사에 대한 명예 메달 수여식과,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한국인(KATUSA)를 포함한 미군의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 건립식이 있었다. 이것들이 한편으로는 의미 있는 기억의 재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의 근간이 한국전쟁으로 형성된 분단냉전군사동맹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중 간 패권 다툼과 북미 간 적대관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을 주제로 기획된 이 같은 이미지 정치가, 분단과 냉전의 기억을 치유하며 가야 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과연 도움이 되는 행위인가.

10. 이번 한미정상회담 직후에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군에 대한 백신접종 지원을 언급하며, 이미 백신접종을 끝낸 주한 “미군과 함께 일할 한국군”이라고 언급하였다. 이것은 코로나 감염병 상황 속에서 오는 8월 혹은 그 이후에 전개될 한미연합군사작전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한 협력 조치로 해석된다. 백신지원을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전략적으로 연관시켜 한국군을 특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한미동맹을 높게 평가한다는 바이든 정부의 ‘실용적 외교’인가? 과연 이 시점에서 8월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재개에 도움이 되는 행위인가?

11.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규제를 해제한 것이, 자주국방의 주권을 일부 회복하고 우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조건부 전시작전권 이양과 맞물리면서, 결국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북·중·러와 형성된 신 냉전질서를 자극하고, 분단체제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미동맹이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면서, 한미동맹은 세계 신 냉전질서 하에서 분단체제를 지향하는 군사동맹으로 더욱 견고하게 자리잡게 된 것이다. 한미연합군사작전의 전략적 목표 대상지역이 단순히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더 나아가서는 인도-태평양지역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12.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전기 차 배터리와 반도체 생산에 대한 대한민국 기업들의 대미투자과 원전수출을 위한 한미공조체제 수립, 글로벌 백신 생산과 보급에 대한 한미 양국의 협력체제에 대한 합의는, 한미동맹이 지닌 경제동맹, 가치동맹의 차원을 열어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반 중국 군사안보동맹의 성격이 강한 다자주의 동맹의 틀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의 실질적 참여가 전제된 협력 체제가 아닌가? 더욱이 원전수출을 위한 한미공조는 문재인 정권의 탈 원전정책과 모순되는 합의가 아닌가?

13.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분단체제 하에서 대한민국의 체제 안정과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평화공존과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남북의 자주적 평화공조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라는 조건과 이에 수반되는 대북제재에 묶여 있다. 미국이 중층적으로 장치된 기존의 대북제재정책이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용적 외교’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허들을 넘기 위해 필요한 남북의 자주적이며 상호주의적인 평화공조의 재개는 어려울 것이다.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싱가포르선언에 대한 실천적 계승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도 여전히 냉전적 조건

에 묶여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주권재민의 가치 위에 서서 한반도 평화를 열망하는 민(民)의 변혁적 의지에 대한 응답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14.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2018년에 이루어진 역사적 정상회담들에 담긴 평화의지를, 미중 패권경쟁구도 속에 자리잡은 인도-태평양전략이라는 그릇에 담아 내므로, 세계적인 신 냉전질서에 편입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한미·미일 양자간 동맹체제가 북·중·러 군사협력체제와 형성하고 있는 신 냉전적 패권구도와, 인도-태평양전략의 하부구조로 자리잡은 한미동맹체제는, 냉전시대에 형성된 ‘동맹의 덫’에 걸린 채 볼모가 된 한반도의 운명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분단과 전쟁 이후에 전개된 우리 민족의 평화를 향한 ‘고난의 행군’의 역사는, 한국전쟁이 잉태한 ‘샌프란시스코-판문점체제’라는 분단냉전체제의 극복 없이는 온전한 해방과 평화는 없다는 민족사적 교훈을 체득한 시간이었다. 결국 한반도를 중심으로 ‘양날의 칼’로 작동하고 있는 한미동맹을 극복하지 않는 한, 평화공존과 통일을 향한 한반도의 민(民)의 ‘고난의 행군’은 지속적으로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주요 의제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입장

15. 첫째, 우리에게 완전한 ‘북조선 비핵화’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과정이요 수단이다.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립된 이후 70년이 지난 2018년 신년사에서, 북조선의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완성했다고 선언하였다. 북조선이 국가주권수호를 위해 핵 탑재 미사일을 사용할 준비가 된 정상국가임을 선언한 것이다. 북조선과 국경을 공유하는 이웃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는 북조선 정권의 붕괴와 이로 인한 난민의 유입과 미국의 개입 등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북조선의 거듭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해결과, 비핵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와 북조선의 체제안정에 대한 보장을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조선 정권

에 맞서 한반도에서 핵전쟁 가능성을 포함한 전쟁 시나리오를 개발해왔다. 북조선은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1994년 김일성 주석 서거 이후 거듭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을 극복하기 위해 전개된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체제안정을 위한 핵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북조선은 체제안정을 위해 경제적 성장 조치를 취하는 것 보다는, 핵개발을 하는 것이 현실적 편익이 크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오랜 과정이 필요한 ‘핵 없는 북조선’을 요구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의 잠재 가능성을 볼모로 잡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평화는 비핵화보다 먼저 와야 한다. ‘북조선 비핵화’는 기다릴 수 있지만, 한반도의 평화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한반도의 민(民)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하며, 평화적 수단 외에 가야 할 다른 길을 알지 못한다. 비핵화 대신에 남북의 자주적 평화공조를 통해 상호불가침과 체제안정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평화의 진전이 필요하다.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금지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에 참여하면서, 한반도를 비핵화하고 후쿠시마 이후 시대에 핵 없는 동북아시아공동체를 만드는 평화체제구축이 평화의 길이다. 남북의 평화공존과 통일에 대한 약속을 근거로, ‘북조선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시아 비핵지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16. 둘째, 한반도에서 민(民)의 생명의 안전권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일체의 군사행동과 적대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미국은 북조선에 향해 그 어떠한 군사력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세계시민의 평화주권의식과 평화적 실용주의, 생명보존의 본질을 기본인식으로, 미국의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배제하는 평화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양립할 수 없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최강 군사력과 최첨단 군사장비로 무장한 채, 대북선제공격과 북조선 점령을 명시한 작전계획을 시나리오로 전쟁연습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상호신뢰를 쌓을 수 없다. 미중 간에 첨예한 신 냉전적 패권 다툼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 인근에 배치되고, 성주에 배치된 사드

체계에 대한 업그레이드 논란이 재개된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분단과 냉전의 녹슨 철문을 열고 평화의 봄을 꽃피운 열쇠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일시적 중단이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이후, 좌초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새로운 탈출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미 두 정권이 8월에 실시할 예정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므로, 평화적 수단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이끌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표현해야 한다. 이제 남북 모두 국가예산을 군사안보비용이 아니라, 남북의 평화공존, 한반도 주민의 생명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써야 한다.

17. 셋째, 보편적 인권과 인도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대북제재체제는 해제되어야 한다. 한국전쟁 이후 지난 70년 간 전개된 대북제재와 압박이 미일동맹의 지정학적 군사적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온 반면, 오히려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저해하면서 한반도 민(民)의 삶을 냉전적으로 굴절시키고 피폐하게 만들어 왔다. 대북제재로 인해 가장 고통을 당하는 대상은 북조선의 인민대중이다. 대북제재는 북조선의 구조화된 빈곤체제를 도구로 삼아 인민대중의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고, 북조선 정권의 붕괴를 꾀하는 반 평화적 행위로, 이것은 전략적으로 구조화된 인권유린이다. 북한체제가 정권의 안정과 내부체제의 유지를 위해 활용하는 반 인권적 행위들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를 교정하기 위한 명분으로 대북제재라는 또 다른 인권 유린 행위를 하므로, 북조선 인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과 생존권이 다중적으로 억압받고 있다. 북조선 정권은 한국전쟁 이후 지속된 오랜 대북제재의 압박 속에서, 체제안정을 위한 유일한 길로 불가피하게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 왔다. 결국 대북제재 해제와 인도적 지원 재개를 바탕으로 남북의 교류협력이 포괄적으로 진행되게 하므로, 북조선 인민의 생활을 안정되게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의 신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북조선의 체제안정을 보장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 북미수교로 이어지므로 사실 상의 비핵화 현실을 이루어야 한다.

18. 넷째, 한반도에서 분단냉전체제를 강화하는 신 냉전체제로 역할하고 있는 한미동맹체제와, 인도-태평양전략의 다자주의 동맹체제인 쿼드체제는, 동북아시아의 공동평화안보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세계냉전체제가 해체된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선진적인 평화동맹이 아니라 한반도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퇴행적인 분단냉전군사동맹으로 역할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이름 아래 미국 의회나 주한미군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는, 남북의 자주적 평화공조를 저해하는 내정간섭을 주도하고 있다. 남북의 지속적인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을 촉진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구축의 가교로 역할 해야 할 한미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주요국들의 반(反) 중국 군사동맹 성격이 매우 강한 쿼드체제를 통해, 미국의 패권전략에 복무하는 신 냉전동맹으로 역할하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패권구도를 안정화하기 위해 한일 간의 갈등 속에서 전개되는 한미동맹, 미일동맹이 지닌 양자간 동맹의 한계를 넘어 보다 견고한 한미일 삼각동맹을 발전시키기를 원한다. 미중 간 패권경쟁 속에서 한미일 삼각동맹구도를 강화하면서 쿼드체제는 진화하고 발전하겠지만, 이 다자주의 동맹체제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미칠 영향은 부정적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부구조로 편입된 한미동맹을 명분으로 대한민국은 언제든지 미국의 이해관계를 위한 동맹외교와 동맹을 위한 전쟁에 소환될 것이다. 이는 북중러 군사협력의 강화를 유발하며 동북아시아에서 신 냉전질서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남과 북을 동맹의 불모로 삼고 전개되는 동북아시아의 신 냉전체제는 한반도의 분단냉전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할 것이다. 쿼드체제 하에서 주한 미군을 위한 방위비 부담은 증가할 것이고, 한반도에 최첨단 전략무기가 유입되어 전략적으로 배치될 것이다. 고도화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고, 한국은 대 중국 억제전선의 최전방으로 내몰릴 것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수렁에 빠진 채 한반도 비핵화 과제는 물론이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발걸음도 내딛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쿼드동맹체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공동의 평화안보체제이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위한 한미교회의 공동과제

19. 첫째, 한미 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반 평화적으로 역행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바로잡고, 치유되고 화해된 평화공존의 한반도를 이루기 위해 세계종교시민사회와 연대하며,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에 참여해야 한다. 한미 양국의 교회협의회는 세계화된 군산정보복합체 세력에 의해 주도되는 ‘전쟁의 경제학’의 논리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제어하는 것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10년 이상의 과정을 필요로 하는 비핵화를 빌미로, 한반도에서 평화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평화적 수단들의 장치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대북제재 해제와 종전선언, 평화조약 체결과 북한체제보장, 북미수교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평화구축 과정이 사실상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길로 이어지게 하는 평화전략이 필요하다. 정전협정 70년인 2023년을 거쳐 미완의 해방 80년을 맞는 2025년까지 전개될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연합의 탄생과 동북아시아 공동평화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를 만드는 주체가 되어 평화구축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20. 둘째, 한미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1.5 트랙 민간평화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평화는 총구에서 나오지 않으며, 대통령과 장군들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는다. 평화구축의 주체는 주권재민의 민주적 가치 위에 살아가는 민(民)이다. 세계시민사회의 평화의지는 충분히 강하며, 평화전략 역시 시대적 공감을 얻기에 충분하다. 정책의 변화를 이끌 정치지도자와 평화운동가들의 지구적-지역적 연대는 세계적인 차원의 평화운동을 이끌며 평화를 만드는 정치를 선도할 수 있다. 민(民)의 평화의 관점에서, 반 평화적 현실을 분석하고 정책의 변화를 주창하며 평화로비를 할 수 있는 한미 민간 평화외교동맹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들의 노력을 통하여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 간 민간교류를 조건 없이 재개해야

한다. 주한미군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는 비무장지대를 분단지대로 영구화하는 ‘냉전안보유지군’이 아니라, 남북의 자주적이며 지속적인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DMZ를 사실상 비무장지대화 하는 ‘평화중재군’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한반도 분단체제를 아시아 신 냉전구도에 항구적으로 구속하는 미일의 인도-태평양 패권전략은, 동북아시아 공동평화안보체제를 구축하는 평화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21. 셋째, 한미 종교시민사회를 주축으로 공동의 적극적 평화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적대적 냉전이데올로기에 의해 점령당한 ‘마음의 지질학’의 지층을 해체하고, 집단적으로 형성된 미움과 증오, 그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므로, 화해와 용서의 마음의 지질학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남북미 민(民)의 마음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 갈등을 평화로 전환하기 위한 현장중심의 적극적 평화교육을 실시하고, 민(民)의 평화현장과 평화 페다고지(pedagogy)를 발전시켜야 한다. 동일한 시대적 아픔에 대한 서로 다른 경험과 이해를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상호이해하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함께 분석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패러다임을 넘어 회복적 정의를 이루어 가야 한다. 이를 통해 남북미에 형성된 냉전문화와 냉전의식을 화해의 문화와 평화의식으로 바뀌어나가야 한다. 민(民)의 평화자본의 증진이 현실주의 국제정치 환경 속에서 국가적 이해관계에 매몰된 국제외교의 방향과 질을 변화시켜 갈 수 있다.

닫는 말

22. 한반도 분단은 일본의 강제 점령 하에서 고통 당하던 한반도의 민(民)을 위한 장기적 전략적 비전보다는, 단기적 전략적 편의주의에 바탕을 둔 미국과 소련의 가장 무모한 타협이었다. 이는 냉전시대라는 반인륜적이며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격동이 남긴 가장 뼈아픈 잔재를 형상화한 것이다. 분단과 한국전쟁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위반하는 전형적인 반동이다. 이는 하나님과 인류, 그리고 자연에

대한 구조적 죄악이요, 모든 생명의 풍성함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모순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 행하신 총체적 구원 행동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관점에서 한반도의 역사를 바라볼 때, 한반도의 분단은 한민족 역사의 끝이 아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구원의 서사의 끝이 아니라 그 서사의 진정한 완성, 즉 부활로 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황폐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은총의 능력에 의해 변혁을 이루므로 한반도의 역사는 출애굽과 해방과 희년의 완성을 향해 전개될 것이다.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은 갱신과 변혁을 이루기 위한 오메가 포인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치유와 화해, 정의와 평화, 그리고 만물의 생명이 넘치는 평화적 공존과 통일의 한반도 만들기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고통의 잔은 한반도의 해방과 평화를 완성하는 소망의 잔으로 바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전쟁과, 특히 핵전쟁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타협할 수 없다. 핵전쟁은 이웃과 자연의 얼굴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도록 완전히 파괴해 버린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세계종교시민사회가 수난당하는 사랑의 성만찬적 연대로 한반도의 진리와 빛에 대한 예언자적 증언에 동참하므로, 한반도에 운명적으로 드리운 분단과 냉전의 사슬을 끊어낼 것을 간구한다.

23. 치유와 화해의 신앙공동체인 우리 한미교회협의회는, 서로를 믿고 그 믿음에 따르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평화중재자로서 우리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만찬적 연대를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적극적 평화를 발전시키므로 민(民)의 생명의 안전을 강화하고, 냉전과 분단의 마음의 지층을 해체하고 화해와 용서의 마음으로 통합하므로, 한반도의 민(民)이 분단과 전쟁의 희생자에서 진리가 지배하는 희년의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되게 할 것이다. 한미교회협의회는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 71년을 기억하며, 반평화적으로 역행하는 한반도평화 프로세스를 바로잡고 치유되고 화해된 평화공존

의 한반도를 이루기 위해, 세계종교시민사회와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을 촉구하는 한반도종전평화운동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 우리 한국과 미국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반도에 평화를 만드는 주체가 되어 세계종교시민사회와 연대하며 대동평화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과 미국 국민의 평화주권의식이다. 한국과 미국의 국민이 지닌 주권재민의 민주의식 위에 남북미 정상들의 평화선언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한다. 한미교회협의회는 평화는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세계종교시민사회와 평화의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생명평화가 깃든 동북아시아의 공동의 집을 건설하기 위해 사랑과 정의로 연대하며 평화동맹을 이루어 갈 것이다.

특별강연

Ms. Angela Kerwin

미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 대행 및 한국국장

“화해와 일치의 희망을 일구어 내자”

Mr. Jim Winkler

NCCCUSA 총무

먼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미국그리스도교협의회가 7차 협의회를 열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 협의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공동의 믿음,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애정뿐만 아니라 화해와 일치를 향한 우리의 헌신 때문이기도 하다.

그동안 한미교회협의회에서는 미국의 민권 투쟁과 한국의 민주화 투쟁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협의회는 항상 기도와 예배, 웃음과 우정, 그리고 신중한 분석과 전략과 함께했다. 다시 한 자리에서 함께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이번에는 가상으로 모임을 갖게 되었다.

나는 과거에 너무 많은 미국인들이 전쟁의 역사와 그 결과를 잊고 있으며, 다른 문제들과 자기중심주의에 사로잡혀 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역사를 등한시하며 미국은 정치적, 군사적 이익을 위해 미국의 이름으로 끔찍한 일을 행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을 위한 평화와 통일을 환영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은 정치적 증오와 인종주의, 경제적 불평등, 군사주의로 인해 심각하게 분열된 국가이다. 만약 미국이 적개심과 경제적 불평등, 체계적 인종주의, 총기 폭력 및 공중 보건 요구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면, 미국은 추가적인 쇠퇴와 붕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티핑포인트에 도달했다. 미국은 역량 있고 투명성을 갖춘 유능한 정부 리더십의 지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선의가 필요하다.

50여년 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말했다. “우리는 '물질 지향' 사회에서 '사람 지향' 사회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 기계와 컴퓨터, 이윤 동기와 재산권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인종주의, 물질주의, 군사주의라는 거대한 삼중의 문제는 정복될 수 없다.” 우리는 아직 이 세 가지를 물리치지 못했다.

불과 4개월 전, 퇴임하는 대통령의 선동으로 모인 분노한 폭도들이 국회의사당을 습격해 의원들과 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 이 충격적이고 전례 없는 사태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패배 결과에 거듭 불복한 데 따른 것이었다.

체계적 인종주의가 미국을 괴롭게 하고 있다. 유색인종들이 경찰에 의해 살해당하고, 저임금에 시달리며,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제외되고, 질병으로 죽는 경우가 더 잦고, 부를 더 적게 소유한다면 미국은 건강한 국가가 될 수 없다.

마치 전 대통령이 주도한 폭동과 체계적 인종주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 미국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과의 씨름을 계속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미국에서는 6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3천만 명 이상이 질병에 걸렸다.

그동안 미국은 오랫동안 끊임없는 전쟁상태에 있었다. 1961년 1월 17일, 5성 장군 출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퇴임 직전 대국민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군산복합체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부당한 영향력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방어해야 한다. 잘못 부여된 영향력이 재앙을 일으킬 만큼 부상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경고는 무시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0조 달러 이상이 전쟁에 사용되었다. 지난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벌어진 실패한 전쟁에 최소 4조 달러가 투입되었고, 이로 인해 두 나라에서 수십만 명의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은 수십 개 국가의 문제에 군사적으로 은밀하게 개입해 왔으며, 많은 경우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시키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미국은 매년 수천억 달러의 비용으로 800여 개의 군사기지와 많은 비밀시설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매년 7000억 달러 이상을 전쟁에 쓰고 있으며 수백억 달러를 방대한 정보원 네트워크와 감시망을 위해 은밀히 지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패권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이는 많은 미국 지도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미국 군사력의 한계도 쉽게 드러나고 있다.

여러 해 동안, NCC는 미국의 외교 및 군사 정책이 전쟁을 유발하는 데서 벗어나 평화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해왔다. 예를 들어, 현재 NCC는 이란과의 공동 포괄적 행동 계획,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에 대한 개방 및 봉쇄 종료, 완전한 외교 관계 회복, 그리고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으로의 복귀를 지지하고 있다.

대통령직이 “펜타곤화”되면서 미국의 군사주의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헌법상의 권리를 훼손했다. 끊임없는 전쟁 유발은 선전과 거짓말로 정당화되었고, 군대에 대한 칭송과 비대해진 전쟁 예산에 건강, 교육, 환경, 그리고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돈을 사용하여 국가를 굶주리게 했다.

외국에는 전쟁폭력이 존재하고, 미국 내에는 이에 버금가는 총기폭력이 있다. 사실, 우리의 군사주의 문화와 미국의 놀랄 만큼 많은 대량 총격 사건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많은 대량 총격 사건들은 군대식 자동소총으로 행해진다. 2021년 미국에서는 매주 평균 10건의 대량 총격 사건이 있었다.

미국에서 대량 총격 사건은 너무나 빈번해서 NCC 직원들은 성명서를 작성할 때 슬픔과 분노를 표현할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쓴다. 1967년, NCC는 총기 허가 요건과 발급 전 대기 기간을 요구했다. NCC는 의원들에게 공격용 무기와 권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개정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지금까지 아무 소용이 없었고 매일 더 많은 생명을 잃고 있다.

NCC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기독교 민족주의에 대한 중요한 정책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 성명서는 “미국의 근간에서부터, 기독교 민족주의는 국가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하나의 이상적인 관점을 지지하는 이미지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 원주민, 노예가 되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그 후손들을 포함하여 배제되고 착취와 박해를 당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아일랜드계 중국인, 이탈리아인, 유대인, 무슬림들을 차례로 무시하고 있다.”라고 지적한다.

“기독교 민족주의 운동은 처음부터 미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정의롭고 올바르다는 미국 예외주의를 지지해 왔지만, 지난 60년 동안 많은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은 점점 더 당파적, 분열적, 이념적, 호전적인 사람들이 되었다. 기독교의 상징들은 악용되었고, 그 깊은 의미를 잃었으며, 국가에 대한 우상숭배적 충성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기독교 민족주의가 오늘날 우리나라에 끼치는 위험 때문에, 그 악성 관점을 확인하고 의식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약속과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실천에 따라, NCC는 다른 종교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공익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존중하며 파트너로서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따라서 NCC는 우리 사회에서

완전한 참여와 기회의 균등을 지지하고, 현대 기독교 민족주의 운동의 가르침과 목적에 대해 무조건 규탄한다.”

인종차별을 뿌리뽑겠다는 결의와 함께, 이 예언자적인 성명서는 냉엄한 진실을 직시하고 미국의 방향을 정의와 평화의 길로 바꾸겠다는 NCC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내 동료인 이홍정 목사는 강연에서 현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수백만 명의 죽음, 수년간의 고통, 수십 년간의 분단을 초래한 악행과 오산, 그리고 불법행위의 오랜 경로를 포괄적이고 웅변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이 목사의 강연문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필독해야 한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미국이 갈등, 통제, 미국 예외주의 신화, 냉전 사고방식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중독을 끝내려면 변화를 위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다. 나는 미국의 군사주의에 대한 중독을 당장 끊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최소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되는 행위를 줄이고 확실한 진실을 직면하는 것이다.

이 박사의 주제강연 중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는 이 부분이다. “북조선 비핵화’는 기다릴 수 있지만, 한반도의 평화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한반도의 민(民)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하며, 평화적 수단 외에 가야 할 다른 길을 알지 못한다. 비핵화 대신에 남북의 자주적 평화공조를 통해 상호불가침과 체제안정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평화의 진전이 필요하다.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금지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에 참여하면서, 한반도를 비핵화하고 후쿠시마 이후 시대에 핵 없는 동북아시아공동체를 만드는 평화체제구축이 평화의 길이다.”

통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욕망은 우리가 핵무기 광기의 가해자라는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한다. 진실은 전 세계가 미국의 완전한 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슬픈 사실은 심지어 가장 진보적인 미국 정부들도 냉전 사고방식과 군산복합체에서 벗어나는 것을 거부해 왔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향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은 쿠바에 대해 트럼프의 강경 정책을 계속해 왔고, 이란과의 관계 개선에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으며, 팔레스타인 국민의 합법적 열망에 맞서는 이스라엘의 편에 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과의 오랜 분단을 접어들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실제적인 계획이 없었다. 모든 것은 자만심과 극적인 제스처의 필요성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그는 평화에 대한 진정한 비전이 없었다. 그들의 파괴적인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그 변화가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 숙고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울 기회가 있었지만,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보다 나은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에게 계속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냉전 체제가 낳은 인물이다. 그는 미국 상원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공격적인 전쟁에 찬성표를 던졌고, 그는 평화의 주창자가 아니었다.

미국이 군산복합체에 대한 중독과 예외주의라는 파괴적인 신화를 종식시키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금단증상에 대처하고 재발과 대체 중독을 방지하며 더 나은 습관을 받아들이기 위한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할은 경로를 수정하고, 일어난 일에 대해 회개하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 협의회는 평화와 화해의 대리인 역할을 행할 수 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순간이다.

갈등 그리고 낡은 이데올로기의 붕괴

Rev. Paul Tc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현대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자 정의롭고 평화를 만드는 교회가 되도록 부름 받은 교단의 임원으로서, 한반도 상황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그리고 한국인이나 한국계 미국인들만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놀랍고 기뻐했다. 미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미국 정부가 북동 지역 특히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고무적인 것은 그렇게 믿는 미국 기독교인들은 단지 진보적인 성향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 5월 25일 코리안헤럴드에 발표된 워싱턴 DC 주재 한국경제연구소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배경과 관계없이, 북의 핵무기 폐기에 관한 협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동시에 흥미로운 것은 응답자의 57%가 북을 적국으로 여긴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 조사에서 적국으로 지목된 다른 국가로는 러시아(52%), 중국(48%), 이란(48%)이 있다. 놀라웠던 것은, 미국이 최근 역사상 끔찍한 군사적 충돌을 행한 베트남을 목록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왜 미국인들 중 절반은 한국전쟁 이후 두 나라 사이에 명백한 군사적 충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북이 미국에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미국인들이 미국과 밀접한 유대를 맺고 있는 남한 국민들의 안녕을 염려하기 때문은 아니

라고 생각한다. 많은 미국인들은 북이 보유한 핵탄두가 한반도에 가까운 미국 영토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도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인들 절반 이상이 북쪽 사람들이 위험한 미사일을 갖고 있고 미국에 맞서 미사일을 사용하려 한다고 믿는다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조선을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정부와 다른 강경파들이 내세우는 주장의 근거를 알고자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그렇다면, 북을 안보 위협으로 여기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대북협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러한 지정학적 지형에서 미국과 북조선과의 관계, 그리고 심지어 미국과 남한을 포함한 이 지역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존재하는 뚜렷한 불균형을 보지 않는다. 북과의 갈등과 미국 내 인종갈등에는 유사성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다. 많은 백인 미국인들은 미국의 다른 인종과 민족 집단들 사이에서 불평등과 불균형을 보지 않는다. 인종 불평등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가시적이고 비가시적인 백인 의제에 따라 체계적으로 행해지는 소수 민족 집단을 향한 불의를 묵살할 뿐이다. 게다가, 그들은 사회의 주류를 영구적으로 통제하는 백인 의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한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북과 그 지역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 불균형을 영속화하는 미국의 대북 의제가 존재한다고 보지 않는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북이 해야 할 일은 협상 테이블에 나와 대화하는 것뿐이라고 믿고 있다.

미국, 남한, 북조선은 연결된 시소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은 한쪽에 앉아 땅에서 결코 자신의 위치를 잃지 않으려 하고 있다. 다른 한 쪽에는, 공중에 떠있는 북이 땅으로 내려오려 하고 있다. 물론 남한은 이 상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무게를 분산시키려고 시도하지 않고 그저 중간에 앉아 있다. 그리고 미국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 실제로 미국 쪽으로 이동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이 게

임을 위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미국, 남한, 북조선이 서로 멀리 떨어져 앉아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 기이한 장면을 땅에서 보아야 한다. 미국이 북조선보다 안전한 정치, 경제적 상황에 놓이게 하지 않는 한, 대화를 시도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북측 정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만다. 이 지역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과 북조선 사이의 이 비대칭적인 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브라이언 스티븐슨은 그의 책 “Just Mercy” (한국어번역본: 월터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에서 책의 의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가 이 나라에 사는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쉽게 비난하는지, 자신의 두려움이나 분노, 거리감 때문에 우리 중 지극히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부당하게 대하는지 살펴본다.” (스티븐슨, p.14)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확보하는 일에 대해 걱정하며, 우리 미국인들이 이 나라와 이 세계의 북동 지역의 취약한 사람들을 얼마나 비슷하게 대하는지 보고 다시 한번 놀랐다. 우리는 신속하게 사람들을 비난하고, 우리의 두려움과 거리감으로 형성되는 불의를 창조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흠잡을 데 없는 말로 쉽게 꼬리표를 붙인다.

우리 미국인들이 우리 자신을 위한 최대한의 안보라는 냉전의 이념적 지옥을 창조해낸 근거 없는 공포와 분노로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지형을 어떻게 형성해왔는지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 냉전 이데올로기는 사라졌는데도, 우리는 이데올로기 감옥에서 탈출할 마음이 없다.

많은 미국인들은 북조선은 비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북에 대한 제재와 여행 금지, 미군과 한국군의 대규모 군사 훈련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 도대체 우리는 북이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된다는 생각을 어디에서 얻은 것인가?

전체회의의 발언

모두를 위한 희망을 일구어 지구를 지속시키다

Derek Duncan

Area Executive for East Asia and the Pacific

Global Ministries of t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and United Church of Christ

이번 협의회 강연에 대해 발언할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하다.

첫째, 나는 Jim Winkler와 Paul Tche의 글을 연결하는 선을 그어보고자 한다. 그것은 미국의 사회구조에 만연한, 아마도 미국의 고질적인 국민성인 인종주의이다. 두 사람 모두 우리 국가 공동체를 부식하는 인종주의의 영향에 대해 보여주었다.

미국의 인종주의는 세계 공동체에도 악영향을 준다. 영토 탈취를 합리화한 발견의 원칙(Doctrine of Discovery)과 먼로독트린에서부터 대한제국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배와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종주권을 교환한 가쓰라-태프트비망록에 이르기까지 인종주의는 시작부터 미제국의 대외정책을 뒷받침했다. 인종주의는 여전히 미국의 정책에 존재하고 있고, 미국의 국익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미국이 다른 나라 우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나는 이번 공동선언문 초안에서 비중이 작게 다뤄진 항목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군사주의의 생태적 비용이다. 이 부분은 그 동안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에큐메니칼 선언문에서 강조되어 왔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동선언문은 최근 문재인-바이든 정상회담에 대해 “원전수출을 위해 한미가 공조한다는 합의에 주목한다. 이 합의는 핵으로부터 창조 세계를 보호하려는 세계교회의 신앙고백과 실천에 역행하는 반생태적, 반역사적인 합의임을 밝힌다.”고 지적한다. 또한 “한미 양국이 이 합의를 취소

하고 창조세계의 보전을 위해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한반도에서 명백히 드러난 미국 대외정책의 군사화, 특히 핵무장화에 대해 우리 에큐메니칼 교회는 반대한다. 우리는 인류의 삶에 미치는 전쟁의 위험과 국가 및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냉전적 분열의 죄 너머를 보도록 부름 받았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들이 지구에 미치는 깊은 상처와 인간과 지구 사이의 생태적 균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군사주의와 핵 정책의 비용을 계산할 때마다 이러한 생태적 영향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비용은 75년 전 일본에 투하된 원폭이 지구에 일으킨 파괴적인 충격을 떠올릴 때 분명해진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서구 열강의 핵실험으로 태평양의 섬과 사람들에게 남겨진 건강 및 환경적 피해를 고려할 때 이 비용을 유념한다. 그리고 우리 해양 생태계 생명의 지속에 대해 우려하며, 한국, 대만, 태평양 국가의 지도자들과 WCC 지도자들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참사로 발생한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을 비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이 지역에서 보는 것처럼, 만연한 군사주의와 냉전 대립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있다. 선언문 초안에서 시사하는 막대한 군비 지출, 그리고 Jim Winkler가 언급한 수많은 군사기지와 상비군 유지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인해 우리의 지도자들은 이 세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탄소 감축 기술에 긴급히 필요한 투자를 빼앗고 있다. 이홍정 총무가 주장하듯이 정부들은 “국가예산을 군사안보비용이 아니라, 남북의 평화공존, 한반도 주민의 생명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써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인종주의와 우리의 연약한 지구 생태계에 무기를 허용하는 역방향 논리 사이에 존재하는 관련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환경 옹호에는 "환경 인종주의(Environmental Racism)"라고 불리는 개념이 있다. 이 개념은 미국 국가와 주 및 시 정책에서 제도화된 오염 및 환경적 방치와 유색인종 공동체의

황폐화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유색인종이 거주하는 장소에 의도적으로 공장과 폐기물 처리장이 배치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확실히 미국과 서구의 대외정책, 특히 군사주의에 근거한 정책이 지구적 규모의 환경 인종주의라는 죄를 저질렀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에 있는 우리들이 핵 오염과 기후변화로 다가오는 생태적 재앙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적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우리의 민족주의자들이 상상하는 어떠한 방식으로는, "우리 같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가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폭력을 행하기 위해 인간성을 말살한 사람들에게 냉담한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풀칙의 마무리 질문인 "도대체 우리는 복이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된다는 생각을 어디에서 얻은 것인가?"에 대한 한 가지 답이다. 정말로, 풀이 상상력으로 사용한 시소 비유를 들어 말하면, 우리는 양국이 냉전적 적대감과 군사주의로 불안정한 구조 위에서 서로를 지렛대 삼으려 할 때 그 돌을 지탱하는 바로 그 지구를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임준형 사무국장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고,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연대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임준형입니다. 금번 제7차 한미교회협의회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5월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가 원전수출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했습니다. 우리는 2014년 7월 WCC 중앙위원회에서 승인된 <핵 없는 세상을 향한 WCC 선언문 (Statement Toward a Nuclear Free World)>을 기억합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이 선언문의 정신을 통해 바라보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는 핵의 위험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

는 일이며, 창조 세계 전체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위협입니다.

심지어 유럽과 미국에서는 경제성 상실로 인해 퇴출 기로에 있는 발전방식이고,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핵발전은 위험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을뿐더러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일부에서 기후위기의 대안이라 주장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역시 크기만 작을 뿐 핵발전소와 차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임박한 기후위기를 해결할만큼 상용화된 기술도 아닙니다. 게다가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다양한 위험에 오히려 취약합니다. 오히려 기후위기 대응의 바른 방향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금번 만남을 계기로 한미교회가 함께 핵발전 수출 반대 운동에 나설 것을 제안드립니다.

한미교회 협력을 위한 제언

최수산나 총괄부장

한국YWCA연합회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교회 간의 협력의 장이 열린 것에 감사함을 전한다.

한국YWCA는 에큐메니컬 정신, 여성들과의 협력, 그리고 청년들의 자치성에 중심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이에 기반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1. 국내외 기독교 여성들의 연대와 협력

올해 남북여성교류 30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하는 국제 토론회가 국내 여성단체들의 주관으로 11월 개최될 예정이다. 1991년-1993년 남·북·일 여성들의 주최로, 도쿄-서울-평양-도쿄에서 4차례에 걸쳐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이 모임의 성과는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일 공동 대응이 시작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남북여성들이 가장 먼저 DMZ를 걸어서 통과하며 남북교류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첫 만남을 성사시킨 데에는 기독교여성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모임의 주창자는 이우정 전 NCCK 부회장이었으며, 1992년 3차 서울 세미나의 행사비 마련을 위한 모금에는 교회여성연합회의 활약이 컸다. 또한, 북한 여성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만드는 데에는 일본YWCA를 비롯한 일본여성들의 협력이 있었다. 30년 전 있었던 국내 기독교 여성들의 헌신과 주체성, 그리고 국제여성들의 협력과 연대는 2015년 WCD(Women Cross DMZ),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등으로 이어지면서 여성평화운동의 확장에 기여해왔다.

2019년부터 YWCA를 비롯한 여성들이 전개한 KPN(Korea Peace Now) 캠페인은 시민공공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해 한반도 종전과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미 하원 결의안(H.R.152)에 52명의 서명을 받은 바 있고, 올해 5월에는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H.R.3446)을 발의하였다. 이 과정에 캐나다 연합교회(UCC), 메노나이트 등 기독교여성들이 함께 하고 있다. 미국 교회 여성들의 적극적 연대와 개교회들과의 참여가 더해진다면 한반도 평화협정 법안이 통과되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북한 여성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북한 여성들은 가사노동과 함께 경제적 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다. 여성들은 장마당에서 경제활동을 주로 하여 안정적이지 못할 뿐더러, 코로나19의 타격으로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한국YWCA는 북한 여성과 어린이들의 건강권을 위해 분유보내기 운동을 1996년 이후 수시로 전개해왔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여성들의 삶을 위해서는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여성 직업 훈련 센터 설립이라든가, 여성들이 만들어내는 물건을 지속 구입하는 공정무역 등을 위한 통로를 개발하고, 재정적 기반 마련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대북 제재 완화와 민간 교류의 재개라는 우선 과제들의 해결과 더불어, 북한 정부의 의지 또한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한미교회가 인도주의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라는 측면에서 북한여성들의 삶의 질 개선에 지속적 관심을 갖고, 무엇

보다 젠더적 관점을 통합하는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과 활동 전개를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기대한다.

3. 청년 세대들의 삶과 직접 관련된 구체적 의제 개발

2019년 9월 YWCA에서 영 페미니스트들과 글로리아 스타이넘(Gloria Steinem)과의 대화모임을 진행하였다. 주된 내용은, 한국의 젊은 여성들의 가장 큰 관심인 안전(안보)이 군사적 문제에만 결부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평화와 연결된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경우, 군대 가산점 제도는 청년 세대의 참여한 젠더 갈등 이슈이며, 여혐-남혐 문화의 시발점이 되었다. 분단 체제가 전쟁 세대의 이념 논쟁을 넘어, 청년 세대의 젠더 갈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한미교회가 공동계획하고 있는 ‘청년 평화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청년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구체적인 WPS(여성평화안보) 의제를 발굴하고 관심을 이끌어 낸다면, 청년세대가 전쟁 상황과 평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 젠더, 세대, 국경을 넘는 평화운동 참여와 확산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4. 미국 교회의 평화 교육 교재 개발 및 확산

저 멀리 한반도의 평화가 내가 사는 미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포함하여 기독교적 평화의 관점을 묻는 다양한 질문들에 답함으로써, 인식의 확장을 돕고 평화적 윤리를 형성해나가도록 하는 교재들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

한국YWCA는 지난 해 한국 전쟁 70주년으로, 짧은 영상 ‘할머니가 들려주는 전쟁과 평화’를 만들고, 젊은 세대와 디아스포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어와 스페인어 자막을 달아 유튜브에 공유하였다. 이 영상에 나오는 할머니는 ‘평화는 오고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젊은 세대들에게 분단의 상황과 전쟁의 상처를 전한다. 여성들의 평화를 향한 헌신을 담거나 청년들의 생각을 담은 영상, 성서적 평화에 대한 소책자 등, 평화 감수성을 높이며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재가 교회 공동체를 비롯한 각처에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 내에 국한하여 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다각적·다층적 차원에서 다양한 축의 연대를 활용하여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한반도 평화를 향한 미국교회를 비롯한 세계교회의 협력에 다시 한번 감사한다.

공동선언문

제7차 한미교회협의회 공동선언문

“화해와 일치의 희망을 일구어 내자”

“또 십자가로 그들의 적개심을 죽이고 돌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엡 2:16)

71년 전 오늘,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3년 동안의 전쟁으로 남북 약 300만 (민간인 포함), 미군 15만, 중공군 95만, 연합군 1만 7천의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으며, 일천만 이상의 남북 주민들이 이산가족이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대참사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그토록 원하던 통일을 이루지 못했고, 남북으로 분단된 채 70년 이상을 서로 반목하며 또 다른 전쟁의 공포 속에 살고 있다.

한국전쟁 71년을 기억하는 오늘, 코로나 19의 엄중함 속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의 교회협의회 대표 60명은 온라인으로 한 자리에 모여 “화해와 일치의 희망을 일구어 내자”라는 주제로 제7차 한미교회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노근리 학살을 기억하며 드린 개회예배”에서 우리는 전쟁으로 통일도 평화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노근리의 한은 오직 참회와 용서, 평화의 소망으로만 치유될 수 있음을 고백하였다. 주제 발제와 토론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군사주의적이고 반평화적인 한반도의 분단현실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 하였고, 고난과 질곡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화해와 평화의 소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한다.

1. 지난 반세기, 한미교회 공동의 여정을 성찰하며

1970년 서울에서 “동북아의 미래와 딜레마”라는 주제로 첫 한미교회협의회를 개

최한 이래 우리 양 교회는 2003년까지 총 6차례의 공동협의회를 가졌다. 70, 80년대 우리는 “흑인민권운동”과 “한국민주화운동”에 헌신하면서 자유와 인권회복을 향한 예언자적 상상력과 지혜로 연대하고 서로를 격려하였다.

1986년 9월 호놀룰루에서 제4차 한미교회협의회가 열렸고, 두 달 후 11월에 개최된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CUSA) 총회는 한반도분단에 대한 미국의 책임에 대해 참회하고, 화해와 평화를 위한 신앙의 연대를 다짐하였다. 미국교회의 참회와 연대에 힘 입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는 1988년 2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한국교회선언” (88선언)을 발표하고, 북에 대한 적개심을 참회하면서 통일의 5원칙 “자주, 민족대단결, 평화, 인도주의, 민의 참여”를 선언하였다.

1997년 3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 5차 협의회는 한미교회뿐만 아니라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조그련), 세계교회협의회 (WCC), 캐나다 교회, 천주교와 정교회 대표들이 함께 참석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대북제제 해제, 평화교육 강화, 에큐메니칼 자원나눔과 북과의 인적, 물적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2013년 WCC 부산총회는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세계교회 연대의 새로운 촉발점이 되었고, 이에 힘 입어 NCCK는 2016년부터 5년간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세계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그 첫 캠페인을 2016년 7월 미국에서 한미 NCC가 함께 진행하면서 양 교회는 한반도 종전과 평화협정체결을 위해 앞장 설 것을 다짐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 있는 적개심과 증오심, 독선과 폭력성이 화해와 평화를 성취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음 또한 고백하였다.

2.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며

지난 달 21일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다. 세계평화와 화합의 지도력회복을 선언한 바이든 정부에 큰 기대를 걸며 우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극적인

전환을 기대하였다. 양 정상이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외교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점, 남북한의 역할을 존중하고 인도적협력을 확대하자는 데에 합의한 점은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한미동맹관계가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와 가치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미관계를 여전히 군사동맹의 틀에 가두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두 교회가 줄곧 촉구해 온 종전과 평화협정, 대북 적대정책과 군사훈련중지,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이, 오히려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인권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남북, 북미관계 개선을 어렵게 만든 것은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다. 더구나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규제 해제, 한국 군인들에 대한 미국의 백신 지원과 8월 한미군사훈련 부활 암시, 그리고 인도-태평양 쿼드 체제와 대만 해협 등에 대한 언급은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갈등을 고조시키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자극하여 신냉전구도를 촉발시키는 반평화적인 발상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한일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청산보다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조하며 이 지역의 군사적 패권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대해 인권과 정의를 위해 일해 온 우리 양 교회는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가시적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북미대화는 없다’고 언급한 것은 대화와 외교의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오히려 양 정상은 한미합동군사연습 중지, 군비축소와 같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에 합의하고 북미대화, 남북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했다는 점 또한 지적하고 싶은 대목이다.

특히 우리는 원전수출을 위해 한미가 공조한다는 합의에 주목한다. 이 합의는 핵으로부터 창조 세계를 보호하려는 세계교회의 신앙고백과 실천에 역행하는 반생태적, 반역사적인 합의임을 밝힌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선언한 탈원전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우리는 한미 양국이 이 합의를 취소하고 창조세계의 보전을 위해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88선언에서 밝힌 통일 5 원칙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하면서 한미 교회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만나면서 화해와 평화를 향한 공동의 선교에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3. 화해와 일치, 평화의 소망을 향하여

한반도 주민들은 3년의 비극적인 전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다른 전쟁의 집단적 공포를 지닌 채 70년 이상을 살아왔다. 이제 이 고통과 질곡을 끝내고 화해와 평화를 향한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는 양국 정부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한국전쟁에 대한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협의를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 4.27 판문점선언은 종전선언이 한반도에서의 개전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차단하며, 모든 적대행위를 끝내고 평화협정을 위한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했다. 우리는 종전과 평화협정이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수 많은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미국이 이를 위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병행,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남북의 주도적(병행발전)인 노력들을 적극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

2. 신뢰회복을 향한 상호군축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9.19 평양군사합의 이후 무력충돌이 없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과 북한은 서로를 향해 적대적인 무력을 증강하고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군비를 5.4%-8.2% 증액해 왔고, 급기야 2019년 남한의 국방비가 북한의 국내총생산을 상회하였다. 미국으로부터 첨단 무기의 도입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군비증강의 현실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비핵화는

일방적인 압박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당사국들이 상응하는 점진적인 군축에 동의할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목표가 아닌 평화를 위한 과정이므로 이를 이루는 과정 자체도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대감을 조장하는 군비증강을 멈추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 양국에 촉구한다.

3.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인도적 교류와 협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70년간의 대북제재로 말미암아 북한 주민들의 삶은 피해를 겪고 한반도 갈등은 더욱 악화되었다.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인도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참여하였을 때, 전쟁의 위협은 최소화되고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기대감이 극대화되었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였다. 특히 우리는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한 교류나 협력, 특별히 코로나19 의료지원을 포함한 긴급재난지원이 신속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대북제재들을 조속히 해제할 것을 한미 양국에 촉구한다.

4. 미국이 한국을 쿼드 동맹체제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쿼드가 동북아시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신냉전체제를 강화하고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더 견고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한다. 또한 미국 정부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해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 특별히 위안부나 강제노동의 인권문제에 대해 간섭하려는 것은 한일관계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도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밝혀 둔다. 우리는 바이든 정부가 패권적인 국익에 집착하기 보다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내 모든 국가들과 협력하여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변혁적인 지도력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평화는 하나님의 은총이며 축복이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깨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만이 이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내려 놓고, 다름을 인정하며 가진 것을 서로 나눌 때 일치와 화해의 기적이 일어나고 평화의 찾아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평화의 중재자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공동행동 제안

1. 한미 양국교회는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2023년 7월까지 세계교회와 시민사회와 함께 한반도종전평화 캠페인에 적극 동참한다. 이를 위해 지역과 교단, 개교회, 신도회 등과 협력하고 국가별, 교단별, 지역별 피스메이커 (Peace Maker)를 조직한다. 올 7월 국제공동행동 기간에 한미양국의 사회 각계 지도자들의 인증샷 캠페인 참여를 조직하고 독려한다. 또한 코로나 19상황이 개선되면 한미 교회가 공동 캠페인단을 구성하여 교회방문운동을 전개할 것을 고려한다.
2. 남북대화, 북미대화의 계기 마련을 위하여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지 캠페인을 전개한다. 특별히 NCCCK가 8월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지를 위해 7월 한 달을 집중캠페인 기간으로 정해 기도회와 거리시위 등을 조직할 때, NCCCUSA는 이에 적극적인 연대를 표한다.
3. 한미 교회가 청년 지도력의 평화감수성과 평화의 영성 함양을 고취하기 위하여 “청년 평화 공동연수”를 진행한다. 2021년에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하반기 2회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4. 한미교회협의회를 정례화하여 2023년부터 4년에 한번씩 개최한다. 2023년은 NCCCK가 한국으로 초청하고, 이번 협의회 시 결의한 공동행동안 이행을 위해 한미공동워킹그룹을 조직한다. 평화선교사를 워싱턴과 서울에 교차파송하는 것을 고려하고, 이를 통해 양 협의회의 평화 선교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한미 교회의 민간평화외교와 반민반관외교 (1.5 Track Diplomacy)를 확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5. 2020년 예정되었던 참전 미군, 피해자 가족이 함께 드리는 노근리 치유와 화해 예배를 2022년 다시 추진한다. 이어서 2023년 협의회 시 한미교회가 공동으로 한국전쟁 참전 희생자 추모기도회를 한반도(DMZ)에서 추진한다.

2021년 6월 25일

제7차 한미교회협의회 참가자 일동

폐회사

SCHEDULE

20:00 EST, June 24/ 09:00, June 25(Seoul)

20:00 - 20:25 **Opening Worship for Healing and Reconciliation** (with No Gun Ri family)- Homily by Rev. John Dorhauer and led by Rev. Chung Byung Ju

20:25 - 20:40 **Greetings** (NCCCK Moderator Bishop Peter Lee Kyung Ho & Ms. Catherine Gorden, the PCUSA); **Introduction of participants** / moderated by Shin

20:40 – 21:00 **Keynote Presentation 1** (Rev. Lee Hong Jung, NCCCK GS)/ moderated by Rev. Bruce Woodcock

21:00 – 21:30 **Special Presentation** – Ms. Angela Kerwin, Office of Korean Affairs Director and Acting 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with Q&A/ moderated by Rev. Woodcock and an opening comment (after the presentation) by Dr. Yikiho

21:30 – 21:50 **Keynote Presentation 2** (GS. Jim Winkler, NCCCUSA, and Rev. Paul Tc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 moderated by Rev. Bae Hyun Ju

21:50 - 21:30 **Q&A to Keynote presentation 1,2/ Plenary Discussion** (Designated speakers: Mr. Peter Prove, WCC/ Rev. Peter Noteboom, the CCC/ Rev. Levi Bautista, the UMC/ Dr. Derek Duncan, Global Ministry/ Mr. Lim Jun Hyung, Korean CNWFNWNPN/ Ms. Choi Susannah (YWCA-Korea)/ moderated by Rev. Bae Hyun Ju

22:30 – 22:50 **Adoption of a Joint Statement**/ (Designated speaker – Ms. Patti Talbot, the UCC/ Dr. Kim Hi Heon, the PROK/ Rev. Unzu Lee, PCUSA)/ moderated by Shin

22:50 – 23:00 **Closing Remarks** (Bishop Hee-Soo Jung, NCCCUSA/ Rev. Kang Yong Ku, NCCCK); Closing Prayer by Bishop Jung

BACKGROUND

The first NCCCUSA - NCKK consultation was held in 1970 in Seoul under the theme, “The Future and Dilemma of Northeast Asia.” Following that meeting the two churches held 6 rounds of consultations that identified their common mission tasks based on their shared theological confessions. In addition, much effort has been made to create a framework for the discussion of multilateral missions, which have been joined by the WCC and CCA, beyond the framework of both churches.

In the 1970s, the main issues the two Churches addressed together included the democratization of Korea, human rights issues, and the civil rights movement in the US. In the 1980s, they concluded that the basic reason for the lack of progress in human rights and democratization in Korea (The Message of the 1986 Consultation) was the system of national division. Therefore, they began to focus their joint mission activities on reconciliation, peace,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particular, at the NCCCUSA General Assembly which gathered in November right after the 4th NCCCUSA - NCKK consultation in 1986, they adopted a policy statement deciding to devote themselves to healing, reconciliation, and peace while repenting for the responsibility that U.S. Christians bore for the division of Korea.

In 1984 and 1986, they gathered along with the Canadian Church and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as a Consultation of the Churches of Korea and North America. In 1997, the NCC-Korea, the Korean Christian Federation (North Korea), and the US joined with the WCC, the CCA, the Roman Catholic Church, and the Orthodox Church. They gathered in New York to discuss in detail their visions and

role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y especially declared that through efforts to transform the Korean armistice into a peace agreement, leading civilian exchanges by working on peace education, increasing women's participation, and sharing ecumenical resources, they hoped to open up a new era of faith and mutual cooperation.

In 2003, at the last gathering of the NCCCUSA and NCKK in Washington, D.C., they reaffirmed their discussion and the recommendations they made in 1997, and they vowed to break down the walls of hatred and division within themselves and to participate in God's plan for our salvation making us into new humans through the cross.

Recently the two councils have worked on the NCKK's Peace Treaty Campaign trip to the US in 2016 and the 30th Anniversary Conference for the celebration of the Korean Church's 1988 Declaration, as well as making an effort to regularize their consultations.

The NCCCUSA and NCKK planned to hold their 7th Consultation at Washington DC in June, last year, but due to COVID 19 we could not hold it, and eventually we agreed to organize an online consultation on June 24 (25).

Purpose:

- 1. Reflecting on the Korean-US Church's mission journey**
- 2. Sharing the Korean-US Church's situation and mission tasks**
- 3. Exploring joint action plans especially in the era of Joe Biden's Administration**

Date/Location: 20:00-23:00, June 24(EST); 09:00-12:00, June 25(Seoul)

Greetings

Greetings of the Moderator of the NCCK at the Korea-US NCC Meeting on June 25, 2021

I pray that the Lord's peace will fill everyone who attended the 7th Korea-US NCC Meeting.

Humanity is going through a painful time with a very tough fight with COVID-19. It is deplorable that we could not meet together and share holy communion due to COVID-19. It is a challenging situation, but thank you for communicating and working together to build peace in this way.

This year marks the 71st anniversary of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Although 71 years have passed, the pain and wounds of the war continue. The social conflicts and difficulties experienced by the division were too great.

I believe that it is an essential mission of the church and that our Lord, the King of Peace, is pleased with the efforts of the Korean and American churches to work together for the end of th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the establishment of God's peace, and the stability of Northeast Asia.

I look forward to promoting reconciliation, unity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oday's meeting. We want to establish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y urging inter-Korean dialogue and dialog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We hope that this conference will be a valuable opportunity to work together on these issues.

Lastly,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 gratitude to all the working-level staff who worked hard for this meaningful meeting today.

June 25, 2021

The Rt. Rev. Peter Kyong-Ho Lee
Moderator of the NCCK

Worship for Healing and Reconciliation between with No Gun Ri Family

Presider: Rev. Chung Byung Ju

(NCCK, Chair of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Committee)

Invoking God with Sound of the Jing

(Three strikes of the Jing to symbolize the Trinity)

Procession

(a small procession of symbols of peace to the altar during the sound of Jing)

Cross: symbol of peace

No Gun Ri photo: Seeing the Twin Tunnel, we remember the victims and the bereaved families of No Gun Ri Incident and hope for healing and reconciliation of the division of Korea Peninsula.

Greetings of Peace

Rev. Oh Il Young

(KMC, General Secretary of World Missions)

Opening Hymn

Blest Be the Tie That Binds

1. Blest be the tie that binds Our hearts in
2. Be - fore our Fa - ther's throne We pour our

Chris - tian love; The fel - low - ship of
ar - dent pray'rs; Our fears, our hopes, our

kin - dred minds Is like to that a - bove.
aims are one, Our com - forts and our cares.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the hymn 'Blest Be the Tie That Binds'. It is written in 3/4 time with a key signature of one flat (B-flat). The score consists of three staves of music. The first staff has two vocal lines: a soprano line and an alto line. The lyrics are: '1. Blest be the tie that binds Our hearts in' and '2. Be - fore our Fa - ther's throne We pour our'. The second staff continues the melody with the lyrics: 'Chris - tian love; The fel - low - ship of' and 'ar - dent pray'rs; Our fears, our hopes, our'. The third staff concludes the hymn with the lyrics: 'kin - dred minds Is like to that a - bove.' and 'aims are one, Our com - forts and our cares.'.

Joint Prayer (In English)

Presider: God of creation, you formed this world and all life in it to thrive in community together. We gather now, separate yet connected across thousands of miles by your Spirit.

People: God of creation, bind us in your love.

Presider: God, you gave your people shelter, homes, and communities in diverse habitats throughout the planet so that we could join you in caring for this creation.

People: God of creation, bind us in your unity.

Presider: We took these communities and created divisions, separating your people from one another. We turned your harmony into discord.

People: God of creation, bind us in your peace.

Presider: God, call us back into your harmony. May your Spirit reconcile us to each other and to you.

People: God of creation, bind us in your reconciliation.

All: Amen.

Scripture Reading

Korean: **Captain. In Eun Young** (The Salvation Army Korea Territory)

English: **Rev. Kurt Esslinger** (Ecumenical Forum Korea Coordinator)

Homily

Rev. John Dorhauer (President, UCC, USA)

< A Healing Ceremony for the Massacred in No Gun Ri >

Song for Healing

Korean Traditional Music Mission Group

YeHyang (Hyanglin Church)

“May Peace be with You”

Reading for Healing: No Gun Ri

Rev. Ha Seong Ung (Ecumenical Youth Council in Korea)

The infamous site where 400 South Koreans were massacred by US troops in the 1950 American war in Korea.

I was one of a five-member ‘Veterans For Peace’ delegation sent to South Korea in support of an effort to prevent the eviction of farmers from their land taken from them for a U.S. base expansion. . .

We stand in a circle looking down – at the bullet ridden wall – the entrance to the train tunnel that goes through the village of No Gun Ri – our hosts include a retired South Korean General.

He wants us to know about this place—what happened?

A small altar of flowers and pictures shows some of the children and mothers who died here 60 years ago.

Ms. Patti Talbot (Team Leader, Global Partnership Program, UCC)

Among our small group of about ten is a humble woman – who cries silent to herself.

She was a nine year old girl – who watched in horror – as all those around her went down in a hail of bullets from machine guns and planes that strafed the entrance and into the railroad tunnel – earlier soldiers had told them to go there for safety.

She speaks to us softly and pleadingly so we might understand the impossible. Her parents and siblings are dying – amid the noise and screaming and impacts of missiles of death. She gets up and looks at her dead family, but her left eye has fallen out of her head – holding in her hand.

Sixty years later – I go – hold her in my arms – this nine year old girl – as if to apologize – on our behalf

(No Gun Ri by Tom Kennedy)

Rev. Han Jue Hee (The Anglican Church of Korea)

We pray to you, thinking of Koreans who have been hurt by long division and fear of war. Divided reality has given people unbelief and pains too long.

This reality is ongoing suffering and it causes our pain and struggles in the communion of the global church.

Lor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not just theirs.

The peace of the world can be made closer through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Ms. Yang Da Eun (The National Council of YMCAs in Korea)

Now, we join a campaign to remember the 70th year of the Korean War and to engage the world churches for the support of the peace treaty and reconcili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Bless this historic moment as the Korean church and the world church are joining again for this significant liberation and freedom.

Do you remember the many people who have lived a scissored life every day?

How long, Lord?

Tears shed so long, and shed all over the world, as we struggle and miss our separated family and friends.

Rev. Unzu Lee (Regional Liaison for East Asia World Mission in the PCUSA)

We thanked the Lord to see the leaders of South and North Korea stopping the cold war and talk and exchange with such vision. We thrilled to see the Lord grant the initial step toward the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after seeing the leaders of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eet and share a dream of reconciliation.

Lord, may you be a mediator. And create a relationship of reconciliation, not a tragedy and confrontation anymore.

Use your cross as a sign of the end of division and help us to begin to love one another.

Help the Christians scattered around the world to share in the 2020 year for building peace and reconciliation.

We pray earnestly in the name of the Lord. Amen. (written by Bishop Hee-Soo Jung)

Responding Hymn

O, Lord Hear My Prayer (Taize)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the hymn 'O, Lord Hear My Prayer (Taize)'. It is written in G major (one sharp) and 4/4 time. The score consists of three staves of music with lyrics underneath. The lyrics are: 'O Lord, hear my prayer. O Lord, hear my prayer. When I call, an - swer me. O Lord, hear my prayer. O Lord, hear my prayer. Come and lis - ten to me.' The music is a simple, repetitive melody with a steady rhythm.

O Lord, hear my prayer. O Lord, hear my prayer.

When I call, an - swer me. O Lord, hear my prayer. O

Lord, hear my prayer. Come and lis - ten to me.

Greetings from No Gun Ri

Dr. Chung Koo Do

(President, No Gun Ri Peace Foundation)

Now Let Us Leap Over No Gun Ri!

Today is the 71st anniversary of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and the 71st anniversary of the No Gun Ri incident. On behalf of the victims, I would like to thank both Church councils of Korea and the US for offering a "No Gun Ri Peace Worship Service" in memory of the victims of the No Gun Ri incident.

The Korean War, which began with North Korea's invasion southward, was a war that put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brink of death. It was the US and other UN forces that saved the Republic of Korea from the crisis due to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In particular the US military played a major role and was a great help. In order to protect the freedom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lives of Koreans, 54,246 U.S. soldiers were killed during the Korean War. I sincerely appreciate the noble dedication and sacrifice of the US military. Also, the active help of the U.S. in the postwar period helped South Korea overcome the wounds of the war and achieve remarkable economic growth. Now South Korea has grown into one of the world's top 10 economies.

In this way, the US has helped our nation, but it has also committed inhumane acts such as the No Gun Ri incident. The No Gun Ri incident occurred for four nights and five days from July 25 to July 29, 1950, a month after the start of the Korean War, killing about 400 innocent civilians. At the time of the No Gun Ri incident, my father lost one son who was 5 years old and one daughter who was 2 years old, and even his wife was seriously injured.

My father had been sick all his life because of this incident. And he always thought about telling the world the truth about this incident. Through his efforts, the No

Gun Ri incident became known to the world. At the end of September 1999, AP News reported on the truth of the terrible human rights abuses at No Gun Ri, and the US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investigated the case for a year and three months while public opinion was boiling over. After that fact-finding mission, President Clinton issued a statement expressing regret for the Korean people and the victims of the No Gun Ri incident. He promised to build a memorial tower for the victims and provide scholarships for the bereaved children with a budget of about 4 million dollars.

Unfortunately, however, the memorial project was not pursued. The U.S. government investigated only the case of No Gun Ri among a number of other cases of incidents at the hands of the U.S. military during the Korean War, but they did not investigate any of the other cases. Therefore, we are unaware of who the specific victims are from the other incidents and the extent of the damage. Nevertheless, the US government insisted on building a memorial tower for all victims of unspecified incidents caused by the U.S. military during the Korean War in general and on providing scholarships for children of victims. The victims of the No Gun Ri incident did not want to prevent other US military-related victims from finding out their own truth and redeeming their rights, so they asked the US government to pursue a memorial project only for the victims of the No Gun Ri incident, but the US eventually refused. Finally, in 2006, the U.S. government returned \$4 million of its budget to the U.S. treasury, and so far has never spent one dollar on victims of the No Gun Ri incident. I feel very sorry and regretful about this.

The 24th Infantry Division was dispatched to Korea when the situation in the early days of the Korean War was very urgent. However, the U.S. soldiers, who had little military training and lacked military equipment, could not hold out and lost consecutive battles over 2 to 3 days in Pyeongtaek, Anseong, Cheonan, Geumgang, and Daejeon, starting with the defeat at the hands of the North

Korean army on July 5th. The line of defense had collapsed, literally.

But it was different in the Yeongdong-gun battle. The 1st U.S. Cavalry Division and 25th Infantry Division, which were deployed to the battle of Yeongdong-gun, carried out defense operations effectively for 8 days in Yeongdong-eup, Hwanggan-myeon, and Yongyong-ri. If the line had collapsed quickly even in Yeongdong, the Nakdonggang River Line might not have been able to withstand it. In that sense, we need to remember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Battle of Yeongdong and the victims there.

In the process of digging into the truth of the No Gun Ri incident, I have seen interviews with US soldiers who participated in the Yeongdong Battle. The American soldiers who fought there also suffered from the wounds of the war for a long time. The 1st Cavalry Division was the one that committed the No Gun Ri incident. I remember the testimony of a soldier named Delos Flint from that unit. He said, "Because I've seen so many fellow soldiers die on the battlefield, I feel like I'm still on the battlefield of the past," and he spent his whole life relying on alcohol and medicine to cope with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Listening to the testimony of the US soldiers in the war, I clearly realized that the need for healing the wounds of the past is not limited to our victims of the No Gun Ri incident.

On the 71st anniversary of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we are looking back on the No Gun Ri incident to check the wounds again and reflect on what we will do to heal them. Talking about No Gun Ri's wounds is not an act of hate or revenge against those who caused the pain. It is to recover from the wounds of the past, and there are not only victims of the No Gun Ri incident, but also the aforementioned young U.S. soldiers. In the New Testament, Romans 8:28, there is a saying, "We know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for those who love God,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As the Bible says, I take this opportunity to ask the churches and saints from both Korea and the U.S. to think and work

together to heal the wounds caused by the No Gun Ri incident and walk the path of reconciliation.

To do this, the Biden Democrat administration could try to restore the aforementioned memorial project promised by the former US President Clinton, and build a memorial tower in Yeongdong to remember US soldiers who fought in the war. In last year's ceremony mark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No Gun Ri incident, our bereaved families have already said they will not oppose the establishment of a memorial for the U.S. troops in Yeongdong.

Before it is too late, I sincerely hope that the two countries will work together to overcome the wounds of No Gun Ri and move on to the path of healing and reconciliation. Please pray that the division of the two Koreas will be overcome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established in order to prevent a second or a third No Gun Ri incident from occurring again. Thank you.

Benediction

Rev. John Dorhauer

Keynote Presentation 1

The Ecumenical Solidarity of Churches in Korea and USA For a Healed and Reconciled Korean Peninsula

Rev. Dr. Lee, Hong-jung
General Secretary, NCKK

Opening

01. In the face of the life-safety crisis caused by the Covid-19 outbreak and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today we are holding the Korea-US Church Consultation as we are painfully remembering the 76 years of unfinished liberation and 71 years of un-ended war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is Korea-US Church Consultation, we aim to realize the signs of a changing era and seek a joint discourse and practice for the Churche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the universal value of the Gospel. Through this, we intend to respond to the will of the people for a historical transformation toward independence, liberation, and peace, which is passing and rising through the history of anti-life and anti-peace contradictions that have unfolded on the Korean Peninsula.

02. In particular, today was the day that the Korean War began 71 years ago. The three years of the Korean War, the first hot war of the Cold War Era on the front line of the global Cold War system, eloquently demonstrated the practical

evils caused by war and national violence. The Korean War became a symbol of anti-peace, giving rise to the horrors of killing life, the trauma, the entrenchment of division, and the spread of Cold War culture. The Korean War served as the basis for structuring politics and culture on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oppressive and violent Cold War ideologies in the process of which South Korea and North Korea engage in a competition of systems under the divisional system to form self-fulfilling societies. As the Korean War continued under a state of armistice, the social psychology of the division and the Cold War were internalized, mutual distrust and hostility became an iron fortress, and the imagination of peace retrogressed. The Korean War has become a crucial obstacle on the way to the future of peace, and the people of the Korean Peninsula are still living as victims of the history of "planned" division and war under the 20th-century global Cold War system.

Unfinished Liberation, Never-ending War:

The Geopolitical Fate of the Korean Peninsula

03. Since the 19th century when the waves of imperialism reached their peak, the Korean people have lived without escaping the geopolitical fate of the Korean Peninsula as an arena for the competition of continental and maritime forces. After 36 years from the beginning of the Japanese colonial era (1910) to liberation on August 15, 1945, Korea then fell victim to the Cold War system form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former Soviet Union, facing a tragic national division. In 1948,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representing the global Cold War system, were established in the South and North respectively, and in 1950, the Korean War broke out as predicted, and the division-Cold War system was established on the Korean Peninsula. For the peopl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modern history of the past 110 years since

1910 has been an "Arduous March" toward peace with guaranteed life. We remember the United States, which has been actively involved in the fate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course of this arduous march, as a 'double-edged sword.'

04.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United States sought to enter Asia as an emerging empire, mediating the final negotiations of the Sino-Japanese War (1894), and the Russo-Japanese War (1904). In 1905, the Katsura-Taft Agreement led to a US-Japan agreement that allowed Korea to become a protectorate of Japan and the Philippines a colony of the US. With Japan's invasion wars and US diplomatic intervention, Korea became a nominal protectorate of Japan in 1905, and was forcibly annexed in 1910. The United States detonated atomic bombs on Hiroshima on August 6, 1945 and Nagasaki on August 9 to end the Pacific War. After declaring war on Japan on August 8, the Soviet Union quickly moved south toward Manchuria and the Korean Peninsula. As the US was assuring Japan's defeat, and with a growing anxiety that the Soviet Union, which participated in the war, could occupy Manchuria and the entire Korean Peninsula, two young officers, Dean Rusk and Charles Bonesteel, were dispatched on August 10th to define the United States occupation zone of the Korean Peninsula. They fixed the 38-degree line as a new border using a National Geographic Map, completely unprepared due to the short period of notice. The division of the 38th parallel was able to divide the Korean Peninsula in half, while keeping Seoul under US control. They may have known that Japan and Russia had negotiated the occup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laiming the 38th and 39th parallels just before the Russo-Japanese War.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occupied the Korean Peninsula, and 16 million Koreans were forced into the southern zone occupied by the United States and 9 million into the northern zone occupied by the Soviet Union.

05. On May 10, 1948, general elections were held only in the United States-occupied South under U.N. surveillance. Syngman Rhee, an anti-communist, won the southern election, and Kim Il-sung was appointed as the leader of North Korea by Joseph Stalin. The two Koreas, which were established on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opposed each other, arguing for the “Marching North to Reunification” and the “Liberation of the Chosun Peninsula”, denying each other's existence. Recognizing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a controversial temporary phenomenon, troops from both sides continued to engage in bloody clashes around the 38th parallel, and the Korean War was triggered when North Korean troops invaded South Korea on June 25, 1950. The US intervened in the Korean War by sending US-led coalition forces through a U.N. resolution in the name of protecting South Korea from communist forces.

06. The three-year war was halted by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Agreement, leaving about three million war casualties and hatred because of state violence and mass murder, which were driven by Cold War ideology. Three months after the armistice was signed, the promise to switch to a peace treaty was not kept, and on October 1, 1953,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a division-Cold War military alliance, was signed. The treaty allows US troops to stay in South Korea, promising mutual assistance in case South Korea and the US are attacked by outside forces. The treaty implies a ‘neocolonial’ nature because it says that South Korea grants the US Army, Navy and Air Force the right to deploy on and around South Korea's territory and the US accepts it.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Agreement and the Mutual Defense Treaty created the Korea-US alliance system, the so-called “Panmunjom Regime”. Japan emerged as a special economic beneficiary during and after the Korean War, based o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which took effect on April 28, 1952. Shortly after the peace treaty was

signed, the US and Japan signed the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Treaty, resulting in the US-Japan alliance, the so-called "San Francisco Regime."

07. The San Francisco-Panmunjom Regime is a negative peace system that institutes various forms of structural violence on both sides of the Cold War. The regime raised tensions between the two Koreas to maintain their internal hegemony and violated the people's life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division-Cold War context, the two Koreas failed to fulfill their duty to ensure the people's life safety, as well as committing violence against their citizens in the name of protecting the system. The people of the two Koreas internalized the Cold War consciousness and culture distorted by hostile ideologies, making them hostile strangers to each other. The division and the Cold War put the Korean Peninsula into a quagmire of the World Military Industrial Complex, where apocalyptic-scal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re concentrated. Today's new Cold War hegemonic structure in Northeast Asia, which takes the form of the ROK-US and US-Japan alliance system known as the San Francisco-Panmunjom Regime set against the military cooperation system among DPRK, China and Russia, demonstrates the geopolitical fate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still caught in the 'alliance trap' that was formed during the Cold War.

The ROK-US alliance as a 'double-edged sword': May 21st ROK-US Summit and strengthening of the New Cold War alliance system

08. On May 21st the ROK-US Summit was held in the midst of the Korean peace process remaining stuck against a bitter wall with no way out of the quagmire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political reality that is based on the interests of the neighboring world powers who planned and forced division and war onto the Korean Peninsula. The ROK-US summit confirmed that the historic

Panmunjom Declaration and the Pyongyang Declaration of the inter-Korean Summits, and the Singapore Declaration of the DPRK-US Summit, which all took place in 2018, were still valid. However, it also reminded us that the Korean people's dream of overcoming division and the Cold War, and moving toward a new era of peace, co-prosperity and reunification was still caught in the net of international political realism centered on the interests of powerful n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eople'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ROK-US summit, which is a mixture of contradictory decisions, reaffirms the anti-peace reality of Korea-US relations, led by the hegemonic interests of the US. The ROK-US alliance still works as a "double-edged sword"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09. During the ROK-US summit, there was a Medal of Honor ceremony for a veteran who participated in a battle with Chinese army during the Korean War and groundbreaking ceremony of a memorial wall engraved with the names of US soldiers, including KATUSA (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 killed in the Korean War. On the one hand, these are meaningful representations of memories, but on the other, it shows that the basis of the ROK-US alliance is the division-Cold War military alliance formed by the Korean War. At the ROK-US summit, which was held amid the ongoing hostile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DPRK and the competition for hegemony between the US and China, we must ask whether this image politics based on the Korean War is helpful to the Korean peace process which should be working to heal the memories of the division and the Cold War.

10. In a joint press conference shortly after the ROK-US summit, Biden mentioned support for vaccinations for ROK troops, saying they are for the "Korean troops who work with the US military" in South Korea, as the US military

has already been vaccinated. This is interpreted as a cooperative measure to proceed with the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s scheduled for August or later amid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Is it the Biden administration's "practical diplomacy" that values the ROK-US alliance by strategically linking vaccine assistance to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s? At this point, are the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s scheduled for August an act to help resume the Korean peace process?

11. The lifting of ROK's ballistic missile range restrictions at the ROK-US summit can be seen as a measure to restore some of ROK's sovereignty of national defense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space industry. However, coupled with the conditional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his will eventually stimulate the New Cold War orde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Indo-Pacific region formed against DPRK, China, and Russia, and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division system. As the ROK-US alliance has been used as a tool to secure the US military dominance in Northeast Asia and the Indo-Pacific region, it has become more solidly a military alliance aimed at a division system under the New Cold War order. Isn't the strategic target of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s expanding not only to cover North Korea, but also China and Russia, and even the Indo-Pacific region?

12. The ROK-US summit could be seen as opening the door to a ROK-US economic alliance and a value alliance for ROK companies wanting to invest in electric vehicle batteries and semiconductors in the US and export nuclear power plants. But is it not also a system of cooperation based on Korea's substantial participation in the Indo-Pacific strategy, the framework of a multilateral alliance that is fundamentally an anti-China military security alliance? Moreover, isn't ROK-US cooperation to export nuclear power plants an agreement that

contradicts the policy of nuclear power phase-out of President Moon Jae-in's government?

13. The ROK-US Summit could have helped stabilize the ROK's internal system under the division structure and re-create the present regime again. However, the two Koreas' independent and inter-subjective peace cooperation, which should take precedence according to the Korean people's stance toward peaceful coexistence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still tied to the conditions of denuclearization and accompanying sanctions on the DPRK. As long as the US uses the existing multilayered sanctions on DPRK or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s as a means of "practical diplomacy," it will be difficult to resume independent and reciprocal peac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 end-of-war declaration and the transition from armistice agreement to a peace treaty, which should take precedence according to the Panmunjom Declaration, the Pyongyang Declaration, and the Singapore Declaration, is unfortunately still tied to Cold War conditions. At the ROK-US Summit, it was hard to find any response to the Korean people's transformative will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the value that sovereignty rests with the people.

14. The ROK-US Summit clearly revealed the limitations of a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is incorporated into the global New Cold War order by taking the will for peace that filled the 2018 historic summits and pouring it into the bowl of the Indo-Pacific strategy set in the middle of a US-China hegemonic confrontation. The New Cold War hegemonic structure being formed in Northeast Asia between the bilateral alliance systems of ROK-US and US-Japan, and the military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DPRK, China, and Russia, and the ROK-US alliance system situated as a substructure of the Indo-Pacific strategy, clearly shows the fate of the Korean Peninsula held hostage in an 'alliance trap'

that formed during the Cold War. The history of the Korean people's 'Arduous March' toward peace following division and war was a time to learn the lesson of the nation's history that there is no full liberation or peace without overcoming the 'San Francisco-Panmunjom regime' that was conceived by the Korean War. In the end, unless we overcome the ROK-US alliance, which operates as a 'double-edged sword' centered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eople's 'Arduous March' toward peaceful coexistence and reunification will continue in frustration.

The main agenda of the Korean peace process and the posi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15. First, for us, a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is not the ultimate goal, but a process for peace. In his New Year's address in 2018, 70 years after the founding of the DPRK in 1948, North Korean leader Chairperson Kim Jeong Eun declared that he had fulfilled the "historical work of completing the national nuclear power." DPRK declared that she is a normal nation state ready to use nuclear-capable missiles to protect its national sovereignty. As neighboring countries that share the border with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do not want the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regime or the influx of refugees and US intervention that would follow. They are concerned about North Korea's repeated nuclear tests and missile launches, consistently talking about resolution through dialogue and cooperation, ensur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tability of the regime following denuclearization. However, the US has been developing war scenarios,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a nuclear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gainst the North Korean regime. North Korea did not stop developing nuclear weapons to stabilize the regime in response to the US, not even after the death of President Kim Il-sung in 1994, nor during the "Arduous March" period, which took place to overcome famine caused by repeated natural

disasters. Rather than taking economic growth steps to stabilize the regime, North Korea believes that nuclear development has great realistic benefits and practical effects. Therefore, it is unreasonable to hold hostage the potential for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by calling for a nuclear-free North Korea, which requires a long process. Peace must come before denuclearizatio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can wait, bu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can no longer wait. The people of the Korean Peninsula want peace, not war, and we know of no other way to go than by peaceful means. Instead of denuclearization, we need substantial progress for peace in which mutual non-aggression and regime stability are guaranteed through independent and intersubjective peac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 path to peace involves participating in the formation of an international consensus around a humanitarian ban on nuclear weapons, denuclearization of the entir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post-Fukushima era a peace structure building that makes a nuclear-free Northeast Asian community. Based on the promise of peaceful coexistence and reunific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whol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should be achieved rather tha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16. Second, in order to protect the people's right to life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ll military actions and hostile policies that encourage confrontation and conflict o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must be stopped immediately. The US should not use any military force against DPRK. We need to find a peaceful solution based on the global citizens' sense of peace-sovereignty, peaceful pragmatism, and a basic awareness of the preservation of life that excludes the war scenario of the US on the Korean Peninsula. We urge an end to the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s that are incompatible with the Korean peace process. Armed with the strongest military capabilities and state-of-the-

art military equipment, one cannot build mutual trust in build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y practicing a war plan that specifies preemptive attacks on and occupation of DPRK. With US strategic assets deployed near the Korean Peninsula and controversy over the resumption of upgrades to the THAAD system deployed in Seongju amid a sharp new Cold War hegemonic struggle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DPRK-US joint military exercises on the Korean Peninsula are bound to negatively affect the peace process. The key to opening the rusty iron gate of the division and the Cold War at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was the temporary suspension of the ROK-US joint military drills. In order to make a new way out of the stalled peace process after the summit, the ROK and US governments must express their true commitment to lead the peace process through peaceful means, as they suspend joint military exercises scheduled for August. Now, both Koreas should spend their national budgets not on military and security costs, but on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he two Koreas, improving the safety and quality of life of all those who reside on the Korean Peninsula.

17. Thir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ich are contrary to universal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principles, should be lifted. While sanctions and pressure on DPRK have met the geopolitical and military interests of the US-Japan alliance over the past 70 years since the Korean War, they have also undermined the Korean peace process, distorting and impoverishing people's lives through the Cold War. The North Korean people suffer the most from sanctions against DPRK. The sanctions against DPRK threaten the people's life security by using the structured poverty system of the DPRK as a tool, and as they are an anti-peace act that seeks the collapse of the DPRK regime, they are a strategically structured violation of human rights. While criticizing the anti-human-rights actions that the DPRK regime uses to stabilize its regime and maintain its internal system, we have

tried to correct the situation with another violation of human rights, namely sanctions against DPRK. As a result, the most basic human rights and survival rights of the North Korean people are receiving a multiplied suppression. The DPRK regime has inevitably pushed ahead with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s the only way to stabilize its regime amid the pressure of long-standing sanctions against them since the Korean War. In the end,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will be carried out comprehensively based on the lifting of sanctions and the resumption of humanitarian aid, so the expansion of universal human rights that guarantee the lives of North Koreans should take precedence. And this should lead to an end-of-war declaration, the signing of a peace agre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between the US and DPRK, which guarantees the stability of the DPRK regime, which will create a de facto reality of denuclearization.

18. Fourth, the ROK-US alliance system, which serves as a New Cold War system that strengthens the Cold War Division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Quad system, a multilateral alliance of the Indo-Pacific strategy, must both be transformed into a common peace-security system in Northeast Asia. Even after the global Cold War system has been broken up, the ROK-US alliance on its own is not an advanced peace alliance but a regressive division-Cold War military alliance that violates the sovereignty of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name of the ROK-US alliance, the US congress, and the UN Command which is controlled by the US Forces Korea, is leading an intervention into our internal affairs that hinders an independent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he two Koreas. The ROK-US alliance, which should serve as a bridge to peac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while promoting continued civilian exchanges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nstead serves as a New Cold War alliance perpetuating US hegemony. To stabilize the hegemony structure in Northeast

Asia and the Indo-Pacific region, the US wants to move beyond the limits of the bilateral alliance of ROK-US and US-Japan to develop a stronger ROK-US-Japan trilateral alliance even in the midst of the ongoing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Amid the struggle for hegemony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Quad system will evolve and develop, and the ROK-US-Japan trilateral alliance is strengthened; but the impact of this multilateral alliance on the Korean peace process is negative. In the name of the ROK-US alliance, which has been incorporated into the infrastructure of the Indo-Pacific strategy, ROK will be summoned to war for alliance diplomacy or the alliance itself in service of US interests at any time. This would lead to the strengthening of the DPRK-China-Russia alliance, and would establish a New Cold War order in Northeast Asia. This New Cold War in Northeast Asia, which takes the South and the North as hostages to the alliance, will further strengthen the Cold War in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Under the Quad regime, the sharing of defense costs for US troops in Korea will increase, and state-of-the-art strategic weapons will be strategically deployed on the Korean Peninsula. The advanced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s will continue to be strengthened, and the ROK will be pushed to the fore of the deterrence front against China. The Korean peace process will be bogged down, and it will even be difficult to take the most basic steps such as declaring an end to the war and signing a peace agreement. What we need is not a Quad alliance system, but a common peace-security system for Northeast Asia.

Common Task of Churches in Korea and USA for the Korean Peace Process

19. First, Christians from both Koreas and the US should correct the anti-peaceful and regressive Korean peace process, and to achieve a healed, reconciled peaceful coexistence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join in solidarity with the world's religious and civil society to participate in the Korea Peace Appeal

Campaign to buil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Church councils of the US and ROK should never let the logic of "the economics of war" led by the globalized Military Industrial Complex control the Korean peace process. Under the pretext of denuclearization, which will require a decade-long process or more, the US and ROK governments should not postpone the various peaceful means and ways to build a peaceful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f we really wa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e need a peace strategy that will lead to a series of peace-building processes; this will lead to lifting sanctions on DPRK and end-of-war declaration, guaranteeing the DPRK regime, diplomatic ties between the US and DPRK, and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 Peace Appeal Campaign will be held until 2025 tak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agreement in 2023 and the 80th anniversary of the unfinished liberation in 2025 as historic milestones; it should more ultimately lay the groundwork for the creation of a South and North Confeder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common peace security system in Northeast Asia. Each Christian in Korea and the US should become a leading peace-making subject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to open the way for peace.

20. Second, the 1.5-track of civilian peace diplomacy involving Christians from Korea and the US should be strengthened. Peace does not come from the muzzle of guns and is not made by presidents and their generals. The main subjects of peacebuilding are the people who live on the democratic values of sovereignty resting with the people. The will for peace in the global religious and civil society is strong enough, and the peace strategy is also sufficient to win the sympathy of this era. The global-local solidarity of political leaders and peace activists who will lead policy changes can lead a world-class peace movement and lead the politics of peacemaking. From the perspective of people's peace, a Korea-US civilian peace and diplomacy alliance should be

formed that can analyze anti-peace realities, advocate for policy changes, and lobby for peace. Their efforts should succeed in lifting sanctions on DPRK and resuming humanitarian aid and inter-Korean civilian exchanges unconditionally. The UN Command which is controlled by US Forces Korea should be transformed from a Cold War-security maintaining army, which perpetuates the DMZ as an ever divided area, into a peace mediating army which effectively demilitarizes the DMZ, serving as a bridge between the two Koreas' independent, continuous civilian exchanges and economic cooperation. The US-Japan's Indo-Pacific hegemonic strategy, which permanently binds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to the Asian New Cold War structure, should be transformed into a peace strategy to establish a common peace and security system in Northeast Asia.

21. Third, a joint positive peace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mainly by the religious and civil society of Korea and the US. We must dismantle our stratified 'geology of the mind' that is occupied by hostile Cold War ideologies, and through a collective healing from hatred, enmity, and trauma, we must transform it into a 'geology of the mind' based on reconciliation and forgiveness. In order to achieve the integration of the minds of ROK, DPRK and the US,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field-oriented positive peace education, and develop a peace charter and peace pedagogy for transforming conflicts into peace. Different experiences and understandings of pain from the same era should be mutually understood through feelings of reciprocity, and as more fundamental causes are analyzed together, restorative justice should be achieved beyond the paradigm of perpetrators and victims. Through this, the Cold War culture and the Cold War consciousness formed in the two Koreas and in the US should be transformed into a culture of reconciliation and peace. The promotion of people's peace-capital in a realistic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can

change the direction and quality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diplomacy buried in national interests.

Closing

22.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was the most reckless compromise between the US and the Soviet Union based on short-term strategic expediency rather than a long-term strategic vision for the people of the Korean Peninsula who had been suffering under Japanese occupation. It embodies the most painful remnants of the anti-humanistic, ideological, and political turbulence of the Cold War era. The Division and the Korean War are typical reactionary violations of our contract with God. This is a structural sin against God, humankind, and nature, contradicting God's will for the fullness of life for all. Looking at the history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perspective of God's holistic salvific actions for this world, a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world God desires,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cannot be the end of the history of the Korean people. Jesus' death was not the end of the narrative of salvation, but a decisive turning point for its true completion in the resurrection. Similarly, the division and war on the Korean Peninsula is the devastation created by humans, and eventually as it is transformed by God's grace, the history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develop toward the completion of the Exodus, Liberation, and Jubilee. From a theological point of view, the division and war on the Korean Peninsula form an omega point in achieving renewal and transformation. God's people were called to participate in making a peacefully coexisting and reunified Korean Peninsula which is filled with healing and reconciliation, justice and peace, the fullness of life for all. In this belief, the cup of suffering from division and war will be transformed into the cup of hope that completes the liberation and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As God's people, we cannot compromise our faith in Jesus

Christ for the sake of any kind of war, especially nuclear war. Nuclear war completely destroys the existing face of God on the faces of our neighbors and in nature. As the people of God living on the Korean Peninsula, we urge the world's religious and civil society to break the fated chain of division and Cold War of the Korean Peninsula by joining the prophetic testimony of truth and light on the Korean Peninsula.

23. The NCKC and NCCCUSA as a faith community of healing and reconciliation will strengthen our role and capabilities as peacemakers and promote communal solidarity based on mutual trust, while willing to trust and take risks following our beliefs. We will develop a positive peace in our daily lives, strengthen the safety of the people's lives, dismantle the layers of the mindset of Cold War and division, and integrate them into a spirit of reconciliation and forgiveness, so that the people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transform from being victims of division and war into a new jubilee creation governed by truth. Remembering a 71-year long Korean War, the Korea-US Church Consultation should correct the anti-peaceful and regressive Korean peace process, and together with the world's religious and civil society, we should make all-out efforts to push for an end-of-war declaration and a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so we can achieve a healed and reconciled, and peacefully coexisting Korean Peninsula. Each Christian of Korea and the US should become a peacemaking subjec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open the way for peace that is equally accessible to everyone by joining in solidarity with the world's religious and civil society. What is important now is the consciousness of peace-sovereignty of the peace-loving people of Korea and the US. The peace declaration of the ROK-DPRK and US-DPRK summits should be established more firmly upon the democratic consciousness of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of Korea and the US. The Korea-US Church Consultation believes that peace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peaceful means, and for a permanent peace settl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eace in Northeast Asia we will strengthen the solidarity for peace of the world's religious and civil society. In order to build a Northeast Asian Common House with life and peace, we will form a peace alliance in solidarity with love and justice.

Special Presentation

Ms. Angela Kerwin

Office of Korean Affairs Director

and Acting 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Keynote Presentation 2-1

“Reclaiming hope towards reconciliation and unity”

Mr. Jim Winkler

General Secretary, NCCCUSA

In the First, I wish to give thanks to God for this 7th consultation between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of Korea and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the USA. We hold these consultations not only because of our shared faith in Jesus Christ, not only because of our mutual love and affection for one another, but because of our commitment to reclaim hope towards reconciliation and unity.

These consultations have covered a wide variety of themes including the civil rights struggl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struggle for democratization in Korea. Always, they have included prayer and worship, laughter and friendship, and careful analysis and strategy. This time, circumstances require us to meet virtually with the expectation we will be together in the same location when we meet again. I have confessed in the past that too many in the United States have forgotten the history of the war and its consequences, that we have been consumed by other matters and our self-centeredness. This neglect has enabled our political and military interests to do terrible things in our name. I say this because I believe most Americans would welcome peace and reunification for the Korean people.

However, the United States today is a bitterly divided nation, marked by political hatred, racism, economic inequality, and militarism. If the US cannot address animosity, economic inequality, systemic racism, gun violence, and public health needs, as well as other major problems then it faces further decline and perhaps collapse. We have reached a tipping point. The US needs a sustained period of capable government leadership marked by competence and transparency, and the active engagement and good will of its population.

More than 50 years ago, the Rev. Dr. Martin Luther King, Jr. said, “We must rapidly begin the shift from a ‘thing-oriented’ society to a ‘person-oriented’ society. When machines and computers, profit motives and property rights are considered more important than people, the giant triplets of racism, materialism, and militarism are incapable of being conquered.” We have yet to defeat these giant triplets.

Just four months ago, an enraged mob called together and encouraged by the outgoing president stormed the nation’s Capital building and threatened to murder lawmakers and the vice president. This shocking and unprecedented insurrection was preceded by then-President Trump’s repeated refusal to commit to accepting the results of the election in the event he was defeated.

Systemic racism plague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cannot become a healthy nation when people of color are murdered by police, paid less money, kept out of key corporate decision-making roles, die more frequently from disease, and own less of the wealth.

As if an insurrection led by the former president and systemic racism is not enough,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grapple with the coronavirus pandemic during which more than 600,000 have died and more than 30 million have fallen ill.

Meanwhile, the US has long been in a state of perpetual war. Just before he left office, on January 17, 1961, President Dwight Eisenhower, a retired 5-star general, told the nation, “In the councils of government, we must guard against the acquisition of unwarranted influence, whether sought or unsought, by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The potential for the disastrous rise of misplaced power exists, and will persist.”

President Eisenhower’s warning has gone unheeded. More than \$30 trillion has been spent on wars since the end of WWII. At least \$4 trillion was spent on the failed wars in Afghanistan and Iraq over the past 20 years which resulted in the deaths of hundreds of thousands of civilians in those nations.

The US has intervened militarily and covertly in the affairs of dozens of nations, in many cases overthrowing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s and causing the deaths of untold millions of people. The US maintains some 800 military bases as well as many secret installations at a cost of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each year.

The US spends more than \$700 billion a year on war and secretly spends tens of billions more on a vast network of spies and surveillance. And yet the age of American hegemony is coming to an end. This is a difficult reality for many American leaders to accept. The world is rapidly changing and the limits of American military power are becoming readily more apparent.

For many years, the NCC has supported the reorientation of US foreign and military policy from war-making to peace-making. Currently, for example, the NCC supports a return to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with Iran; for a return

to President Obama's opening to Cuba and, indeed, full diplomatic relations and an end to the blockade; and for a peace treaty to end the Korean War.

US militarism has resulted in damage to our democracy and constitutional rights as the presidency has been "Pentagonized." Constant war-making has justified by propaganda and lies and the glorification of the military legions and the bloated war budget has starved the nation of money desperately needed for health, education, the environment, and the common good.

This state of violence overseas is matched by gun violence in the US. Indeed, there is a close link between our militaristic culture and the astounding numbers of mass shootings in the US, many carried out with military-style automatic rifles. There have been, on average, 10 mass shootings each week in the US in 2021.

Mass shootings in the US are so common the NCC staff struggles to find fresh ways of expressing sorrow and outrage as they compose statements. In 1967, the NCC called for permit requirements and a waiting period prior to issuance. The NCC has called upon legislators to enact reforms that limit access to assault weapons and handguns. This has been to date to no avail and each day more lives are lost. The NCC Governing Board last month adopted an important policy statement on Christian Nationalism which points out that "From the foundation of the United States, Christian nationalism has employed images that advocate an idealized view of the nation's identity and mission, while deliberately ignoring those persons who have been excluded, exploited, and persecuted, such as Native Americans, enslaved African Americans and their descendants, and a cascading procession of others including Irish Chinese, Italians, Jews, and Muslims.

“From its beginnings, the Christian nationalist movement has endorsed American exceptionalism, the idea that the US is more righteous and upright than other nations, but during the last sixty years a significant number of Christian nationalists have become increasingly partisan, divisive, ideological, and militant. Christian symbols have been misappropriated, emptied of their profound meaning, and invoked to support idolatrous loyalty to the nation. Because of the danger that it poses to our country today, identifying and consciously adjuring its malignant outlook is vitally important.

“In accordance with our nation’s promise of religious freedom and its practice of religious pluralism,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pledges to welcome, to respect, and to cooperate as partners with those who practice other religions and hold other world views, and are committed to the common good. Supporting their full participation in our society and equal access to its opportunities, the NCC therefore unconditionally condemns the teaching and objectives of the contemporary Christian nationalist movement.”

Coupled with its determination to eradicate racism, this prophetic statement reveals the commitment of the NCC to face up to hard truths and to work to change the course of the United States to one of justice and peace.

In his address, my colleague, Rev. Dr. Hong-jung Lee has provided us with a careful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a comprehensive and eloquent recitation of the long path of misdeeds, miscalculations, and malfeasance that has resulted in the deaths of millions of people, years of misery, and decades of division. Rev. Dr. Lee’s address should be required reading for all who wish to know the truth of what is happening today.

What we must acknowledge is that the US is addicted to conflict, to control, to the myth of American exceptionalism, and to a Cold War mentality. We know that to end any addiction it is important to make the decision to change. Although I am prepared for my nation to quit its addiction to militarism instantly, I recognize we should at least reduce our problematic behaviors and face up to certain truths.

I believe one of the most important passages of Dr. Lee's keynote points the way for us when he says,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can wait, bu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can no longer wait. The people of the Korean Peninsula want peace, not war, and we know of no other way to go than by peaceful means. Instead of denuclearization, we need substantial progress for peace in which mutual non-aggression and regime stability are guaranteed through independent and intersubjective peac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e path to peace involves participating in the formation of an international consensus around a humanitarian ban on nuclear weapons, denuclearization of the entir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post-Fukushima era a peace structure building that makes a nuclear-free Northeast Asian community."

The US desire for control blinds us to the reality that we are the perpetrators of the madness of nuclear weapons. The truth is the rest of the world does not trust in the complete goodness of the United States.

The sad truth is that even the most progressive US governments have refused to break from the Cold War mentality and the military industrial complex. President Biden has reinstituted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engages in negative language toward the DPRK. To date, President Biden has continued Trump's reactionary policies toward Cuba, he has not made sufficient progress on

correcting relations with Iran, and he continues to stand with Israel against the legitimate aspirations of the Palestinian people.

President Trump may have given us a small measure of hope that the old divisions with the DPRK could be set aside, but he had no real plan. All was based on hubris and a need for a dramatic gesture. He had no true vision of peace. When one wishes to change their destructive behavior, they must contemplate what that change should involve. Donald Trump had a chance to help us do that, but he was not capable of true change.

Is President Biden an improvement over Donald Trump? I believe he is, but we will have to continue to apply pressure on him to see any significant progress. President Biden is a product of the Cold War system. He has repeatedly voted for aggressive wars while in the US Senate and he has not been an apostle of peace. If the United States is to make the decision to end its addiction to the military industrial complex and destructive myths of exceptionalism, it will require a process so as to cope with withdrawal symptoms, to avoid relapse and replacement addictions and to embrace better habits.

It is the role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to insist on a course correction, on repentance for what has taken place and a pledge to move in a new direction. We can utilize our Councils as agents of peace and reconciliation and unity. This is the moment to which God has called us.

Keynote Presentation 2-2

“Conflicts and Old Ideological Ruins”

Rev. Paul Tche

President, Christian Unity and Interfaith Ministry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in the US and Canada

As a Korean-born American in the modern day and a church executive of a denomination that calls upon its members to be a just, peacemaking church, I have felt obliged to do something about the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And I have been pleasantly surprised to learn that it is not only Koreans or Korean Americans who feel the same way. Many Christians in the United States would agree that the US government should ensure peace in the northeastern region and particularly in the Korean Peninsula. What is encouraging to me is that it is more than just progressive wings of Christian Americans who believe so. A recent poll conducted by the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a Washington-based think tank, and republished in the Korean Herald on May 25, 2021, shows that most Americans, no matter their political affiliation, believe that it is crucial to have a deal with North Korea on dismantling the North's nuclear weapons. At the same time, interestingly, the same poll indicates that 57 percent of the respondents regard North Korea as an adversary. What other countries are identified as adversaries in the survey? They were Russia (52 percent), China (48 percent), and Iran (48 percent). To my surprise, on the list, I could not find Vietnam,

with which the United States had a horrendous military conflict in recent history. Why do half of the Americans believe North Korea is a direct security threat to the United States even though there have not been explicit military conflicts between the two nations since the Korean War? I think it is not because Americans are concerned with the well-being of South Koreans, which has close ties with the United States. It is because many Americans think that North Korea has nuclear warheads that could reach not only the US territories close to the peninsular but also portions of the US mainland.

So it is fair to say that more than half of Americans believe that North Koreans have dangerous missiles and intend to use them against the United States. I have found it very interesting that many who regard North Korea as one of the biggest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have never tried to see any reason behind such a claim by the US government and other hard-liners. Then, what does a deal with North Korea imply among those Americans who believe North Korea is a security threat?

Most Americans do not see, in this geopolitical landscape, the palpable asymmetry in relationship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nd eve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in the region, including South Korea. It is very unfortunate that I see the similarity in the conflicts with North Korea as a nation and in racial conflicts within the United States. Many white Americans do not see inequality and inequity among different racial and ethnic groups in the United States. This is because racial inequality does not affect them. So they merely dismiss injustice toward the minor ethnic groups that is systematically done by the visible and invisible white agenda. Further, they deny the very fact that there is a white agenda that permanently controls the mainstream of society. Likewise, most Americans do not see that there has been a US agenda toward

North Korea that perpetuates asymmetry in th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nd its allies in the region. Most Americans believe that all that North Korea needs to do is come to the table and talk.

It seems that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re playing a wired seesaw game. The United States is sitting on one side, intent on never losing its position close to the ground. On the other side, there is North Korea is up in the air, trying to move down to the ground. Of course, South Korea is just sitting in the middle, not attempting to disperse its weight to balance this situation. It actually moves toward the United States, helping it weigh more. The challenge is that most Americans have seen this game from above. What they are seeing is that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re sitting at a distance from one another. But they need to see this bizarre scene from the ground. Unless the United States lets North Korea be grounded in a more secure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any attempt to have a conversation make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more anxious. To secure peace in the region, this asymmetr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should be corrected first.

In his book, *Just Mercy*, Bryan Stevenson writes about his intention of the book: "It is about how easily we condemn people in this country and the injustice we create when we allow fear, anger, and distance to shape the way we treat the most vulnerable among us." (Stevenson, p.14) Because I am concerned about securing peace in the northeastern Asia region, once again, I am surprised at how similarly we Americans treat the vulnerable in this country and the northeast part of the world. We quickly condemn people and create injustice by allowing ourselves to be shaped by fear and distance. We easily label others with impeccable words.

I pray that Americans can see how we, Americans, have shaped the geopolitical landscape of northeastern Asia with baseless fear and anger, which has created a maximum-security ideological prison of the cold war for ourselves. That cold war ideology is gone, yet we have no intention of escaping from the ideological prison.

Many Americans believe that the sanctions toward North Korea, the traveling ban, and the huge military drills of the US and South Korean military can be justified because North Korea is unreasonable and unreliable. Where on earth did we get the idea that North Korea is deserved to be treated this way?

Plenary Discussion

“Sustain the Earth to Reclaim Hope for All”

Derek Duncan

Area Executive for East Asia and the Pacific
Global Ministries of t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and
United Church of Christ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opportunity to add my thoughts to those who have responded to the presentations in this consultation.

First, I want to draw a through-line that bridges Jim Winkler’s and Paul Tche’s papers, which is the racism that is rampant in America’s social fabric and perhaps endemic to the national character of the United States. They both illustrate the caustic effects of racism on our national community.

American racism is also caustic to the global community. From the Doctrine of Discovery and Monroe Doctrine that rationalized the taking of native lands, to diplomatic agreements like the Taft-Katsura memo that essentially exchanged Japanese imperial control of Korea for US suzerainty over the Philippines, Racism has undergirded the foreign policy of the American Empire from the beginning. Racism is still present in a US policy that assumes patronage over other nations and asserts that our national interests are paramount to others.

Second, I want to lift out a minor item in the draft of this consultation’s joint statement—the ecological cost of militarism. I don’t think this has been

emphasized enough in previous ecumenical statements on Korean peace and reunification. In its critique of the recent Biden-Moon Jae-in summit, the joint statement notes “... the agreement on South Korea and U.S. cooperation in exporting nuclear power plants... is clearly an anti-ecological and anti-historical agreement that goes against the global Church's confession of faith and practice of protecting the created world from nuclear weapons.” The draft “argue[s] that the two governments should cancel this agreement and cooperate for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co-friendly renewable energy to preserve the created world.”

In our ecumenical opposition to the militarization and especially the nuclearization of US foreign policy, especially as manifest in the Korean Peninsula, we are called to look beyond the risk of war to human life and the assault of Cold War division on national and personal dignity. We must also attend to the deep injury these policies cause to our planet and to the ecological balance between people and the earth. We should include this ecological impact whenever we count the costs of US militarism and nuclear policy.

This cost is apparent when we recall the devastating impact on the earth caused by the nuclear bombs dropped on Japan 75 years ago. We are mindful of it when we take account of the lingering health and environmental damage left on Pacific islands and peoples as a result of decades-old nuclear testing by the Western powers. And it is out of similar concern for the life-sustaining ecology of our oceans that has prompted Korea, Taiwan, and leaders from Pacific states, as well as from the WCC, to decry plans by the Japanese govt to release tons of wastewater contaminated from the 2011 Fukushima nuclear disaster into the ocean.

But there are also trade-off costs of rampant militarization and Cold War confrontation like we see in Korea and the region. As the draft statement suggests, by spending excessive amounts of money on weapons, as well as on the numerous military bases and standing armies that Jim Winkler cites, our leaders deprive the world of urgently needed investment in sustainable energy and carbon mitigation technologies. And as Gen Sect Lee Hong Jung asserts, our governments “should spend their national budgets not on military and security costs, but on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he two Koreas, improving the safety and quality of life of all those who reside on the Korean Peninsula.”

We can draw a connection between the racism that undergirds US imperial policy and the backwards logic that privileges weapons over our fragile earthly ecology. There is a concept articulated in environmental advocacy called “environmental racism.” This idea draws a direct connection between the pollution and environmental neglect institutionalized in US national, state, and municipal policies, and the communities of color most devastated by the intentional placement of factories and dumpsites in places they inhabit.

Indeed we can say US and Western foreign policy, especially as it is predicated on militarism, is guilty of environmental racism on a global scale. It is no accident that we in the US have shown too little concern towards those who have suffered from and who are most at risk from the threat of nuclear contamination and from the ecological disasters looming from climate change. US foreign policy still exercises a callous disregard for those who are not “like us,” in whatever ways our nationalists imagine, for those we don’t attempt to understand, and for those we dehumanize in order to do violence to.

This is indeed one answer to the concluding question Paul Tche's poses in his reflection: "Where on earth did we get the idea that North Korea deserves to be treated this way?" Indeed, and to adapt the see-saw metaphor Paul imaginatively employed, we have hardly regarded at all the very earth that supports both side as they try to leverage each other on the teetering structure of cold war animosity and militarism.

Thank you.

Mr. Lim Jun Hyung

Director, Korean Christian Solidarity for a Nuclear-Free World

I'm Jun Hyung Lim, and I work as an activist in the Christian Environmental Solidarity Movement and as general secretary of Korean Christian Solidarity for a Nuclear-Free World. Thank you for giving me an opportunity to speak at the 7th Korea-U.S. Council of Churches. I heard through the media that an agreement was reached at the Korea-U.S. summit in May to cooperate with the U.S. to export nuclear power plants. We remember the Statement Toward a Nuclear Free World approved by the WCC Central Committee in July 2014. I ask you to consider this issue through the spirit of that declaration. This is a threat that can spread a nuclear danger all over the world and lead to the suffering of the entire created world.

Even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it is a development method that is on the verge of being thrown out due to economic loss, and this is the same in Korea. Nuclear power has no real benefits in comparison to the risk, and the problems of spent fuel cannot be overlooked. Small modular reactors (SMRs), which some argue are an alternative to the climate crisis, are only smaller in size and do not differ from nuclear power plants. It has not even been commercialized enough to address the impending climate crisis. In addition, nuclear power is rather vulnerable to the various risks of the climate crisis. Rath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will be an obstacle to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which is the correct direction for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Therefore, I would like to propose that the SK and US Churches join the anti-nuclear power export campaign in the wake of this meeting.

A Suggestion for Korea-US Church Cooperation

Ms. Susannah Choi

Executive Secretary, National YWCA of Korea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for the opening of this forum for cooperation between the Korean and US Churche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 YWCA focuses on the ecumenical spirit, cooperation with women, and autonomy of young people. Based on this, I would like to make a few suggestions.

1. International Christian Women's Solidarity and Cooperation

This year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inter-Korean women's exchanges, and an international forum will be held in November under the auspices of these national women's organizations. From 1991-1993, four seminars were held in Tokyo, Seoul, Pyongyang, and Tokyo hosted by women of South Korea, North Korea, and Japan under the theme, "Peace in Asia and the Role of Women." The result of these meetings was the beginning of a joint response by the women of South Korea, North Korea, and Japan to solve the issue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for the women of the two Koreas to be the first to walk through the DMZ together, thus beginning inter-Korean exchanges. Christian women's activities were notable in accomplishing this first meeting. Lee Woo-jung, the former vice moderator of NCCCK, advocated for the meeting, and the Church Women's Association was active in raising funds for the third seminar in Seoul in 1992. Also, there was cooperation from Japanese women, especially the Japan YWCA, to create a

meeting place with North Korean women. The dedication and independence of Christian women in Korea 30 years ago, and the cooperation and solidarity of international women have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of the women's peace movement by leading to the WCD (Women Cross DMZ) in 2015 and the Korea Peace Appeal Campaign.

Since 2019, the Korea Peace Now (KPN) campaign, which has been launched by women including the YWCA, has been carrying out civic and public diplomacy. As a result, 52 people signed the US House Resolution (H.R.152) calling for an end to th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 peace treaty last year, and in May this year,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H.R.3446) was put forward. Christian women of denominations such as the United Church of Canada (UCC) and the Mennonites are working on this process together. If we could add the active solidarity of women in the US Church and the participation of their Churches, I think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could be passed.

2. Establishing mid- to long-term plans for sustainability in the lives of North Korean women.

North Korean women with their domestic labor are responsible for boosting the economy. Not only are women facing instability, but they are also vulnerable to the effects of COVID-19. The Korea YWCA has been carrying out powdered milk campaigns since 1996 for the right to health of North Korean women and children. However, for sustainability in women's lives, it is necessary to go beyond temporary and short-lived support, to develop channels for women's vocational training centers for economic independence, developing channels for fair trade where, for example, women can continue to purchase the products they create, and to establish a financial foundation for fair trade. Of course, the North Korean government's commitment is also essential for concrete implementation, along with resolving priorities of easing sanctions on the North and resuming civilian exchanges. Nevertheless, we hope that the Korean and U.S. churches will continue to pay attention to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women in terms of

humanitarianism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nd above all, to establish mid- to long-term development plans and develop actions in this regard.

3. Development of specific agendas directly related to the lives of young people.

In September 2019, a meeting was held with young feminists and Gloria Steinem at the YWCA. The main issue was that safety (security), which is the biggest concern of young Korean women, was not only linked to military issues, but also to peace in daily life. In Korea, the military bonus point system has become a sharp gender conflict issue for the younger generation, and it has led to a culture of anti-women and anti-men hate. This is a clear example of the reality that the division system is deepening beyond the ideological debate of the war generation and expanding into a gender conflict for the younger generation.

If the Korean and U.S. churches excavate and draw attention to specific WPS (Women's Peace Security) agendas that affect the lives of young people, it will be able to increase understanding and empathy for the war situation and peace, and set the stage for a peace movement that transcends gender, generations, and national borders.

4. Development and proliferation of peace education textbooks in US churches.

I hope that there will be many textbooks that help expand awareness and form a peaceful ethic among US Christians by answering various questions about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peace, including ho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relates to the United States where they live.

Last year, the YWCA Korea commemorated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by making a short video, "The War and Peace Grandma Told by Grandma," and sharing it on YouTube with English and Spanish subtitles to help the younger generation understand the Diaspora. The grandmother in the video says, "Peace means coming and going freely," and conveys the scars of division and war to the younger generation. We hope that textbooks that enhance peace sensitivity and

enhance understanding of the Korea Peace Appeal Campaign, such as videos of women's commitment to peace, young people's thoughts, and biblical peace, can be used in church communities and other places.

Since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s not a matter that can be discussed only within the Korean Peninsula, we hope that it can be achieved using solidarity of various axes at diverse and multi-layered levels, and we once again appreciate the cooperation of the U.S. churches and other world churche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Joint Statement

Joint Statement of the 7th NCCCUSA-NCCK Consultation

“Reclaiming hope towards reconciliation and unity”

“And through the cross God has put to death that hostility and reconciled both groups to God in one body.” (Eph. 2:16)

The Korean War broke out 71 years ago today. The three-year war left about 3 million Koreans from both the South and North (including civilians) dead. 150,000 U.S. soldiers, 950,000 Chinese soldiers, and 17,000 Unified Command soldiers were dead and missing. More than 10 million Koreans from North and South were separated from their families. This was a historical catastrophe. The two Koreas failed to achieve the unification they wanted so much and they have been divided into two Koreas for more than 70 years, constantly living in fear of another war.

Today, remembering the 71st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60 church representatives from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and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NCCCUSA) gathered online to hold the 7th Korea-U.S. Church Consultation under the theme, "Reclaiming hope towards reconciliation and unity." In the "Opening Worship in Memory of the Massacre at Nogun-ri", we confessed that neither reunification nor peace could be achieved by war, and that the “Han”¹ of Nogun-ri could be healed only by penance, forgiveness, and the hope of peace.

¹ *Han*, a Korean word, is a deep feeling that rises out of all those unjust experiences of the sufferings. For more discussion of *han*, see Nam-Dong Suh, “Towards a Theology of Han,” in *Minjung Theology: People as Subjects of History*, ed. The Commission on Theological Concerns of the Christian Conference of Asia (New York: Orbis Books, 1983), 58-69.

Through the presentations and discussion, we shared the view that we are still facing the militarist and anti-peaceful reality of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but we issue this joint statement in the faith that God is with us in the midst of hardship and turmoil and in the hope of reconciliation and peace.

1. Reflecting on the common journey of the Korea-U.S. Churches over the past half-century

Since the first Korea-U.S. Church Consultation was held in Seoul in 1970 under the theme of "The Future and Dilemma in Northeast Asia," the two church councils have held a total of six joint Consultations through 2003. In the 70s and 80s, we devoted ourselves to the "African American Civil Rights Movement" and the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 solidifying and encouraging each other with prophetic imagination and wisdom for freedom and the recovery of human rights.

In September 1986, the 4th Korea-U.S. Church Consultation was held in Honolulu. Two months later, the General Assembly of the NCCCUSA repented for the U.S. responsibility in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pledged support for reconciliation and peace.² Thanks to the U.S. churches' penance and solidarity, the NCCCK issued the "Declaration of the Churches of Korea on National Reunification and Peace" (88 Declaration), and declared the five principles of unification: "independence, national unity, peace, humanitarianism, and people's participation."

In March 1997 in New York City, the 5th Consultation included not only the South Korean and US churches, but also the Korean Christian Federation, the

² International Affairs Commission, NCCCUSA, *Peace and the Reunification of Korea: A Statement of the NCCCUSA* (New York: NCCCUSA, 1986), 1-2.

World Council of Churches, and representatives from Canadian, Catholic, and Orthodox churches, and we agreed to "transform the armistice into a peace treaty, strengthen peace education, share ecumenical resources and expand human and material exchanges with North Korea."

In 2013, the WCC Busan Assembly became a new trigger point for the solidarity of the global Church for Reconcili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led to the NCCCK's "Global Campaign for a Peace Agreement". The first campaign was conducted in July 2016 in the U.S. with the NCCCK and NCCCUSA working together as both church councils vowed to take the lead in ending the war and establishing a peace treaty. However, we also confessed that the hostility, hatred, self-righteousness, and violence that still linger in us are obstacles to achieving reconciliation and peace.

2. Facing our reality

The South Korea-U.S. Summit was held in Washington, D.C. on the 21st of last month. With great expectations for the Biden government, which declared the restoration of leadership for world peace and harmony, we expected a dramatic shift in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We welcomed the news that the two leaders had confirmed the principle of resolving the issue through dialogue and diplomacy as they agreed to respect the 2018 Panmunjom Declaration and Singapore Declaration, but at the same time we were deeply disappoint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was still locked in the framework of a military alliance.

It is unacceptable that the Summit has placed an obstacle in improving inter-Korean and U.S.-DPRK relations by raising, "human rights issues", to which the DPRK sharply reacted, while omitting any mention about an end-of-war

declaration, a peace treaty, or suspension of hostile policies and military drills or lifting of sanctions--all of which our two church councils have continuously demanded. Furthermore, the lifting of South Korea's ballistic missile range restrictions, the provision by the U.S. for vaccine assistance only for South Korean soldiers (which hints at a revival of South Korea-U.S. joint military exercises in August), and the comment on the Indo-Pacific Quad and Taiwan Strait have escalated military conflicts in Northeast Asia. We must stress that all those agreements and comments come from an anti-peace mindset that provokes the DPRK, China, and Russia and possibly triggers a new Cold War system. In addition, we cannot help but express regret over the U.S. intention to strengthen military hegemony in the region by emphasizing the South Korea-U.S.-Japan military alliance without paying attention to a proper resolution of the past history between Korea and Japan.

President Biden's comments at the South Korea-U.S. summit to the effect that, 'there is no dialogue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unless North Korea's visible measures for denuclearization precedes it' do not indicate an attitude of dialogue and diplomacy. The suspension of joint military exercises would open the possibility of U.S.-DPRK dialogue and inter-Korean dialogue.

In particular, we note the agreement on South Korea and U.S. cooperation in exporting nuclear power plants. This agreement is clearly an anti-ecological and anti-historical agreement that goes against the global Church's confession of faith and practice of protecting the created world from nuclear weapons. In addition, as this is in conflict with the Moon Jae-in government's declared denuclearization policy, we argue that the two governments should cancel this agreement and cooperate for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co-friendly renewable energy to preserve the created world.

We are disappointed that the summit did not meet any of the criteria of the five principles of reunification stated in the 88 Declaration, and we pledge to focus on a common mission to reconciliation and peace by praying and meeting more eagerly.

3. Toward reconciliation, unity, and the hope of peace

Despite the tragedy of the three-year war, the people of the Korean Peninsula have continued to live for more than 70 years with the collective fear of another war. Now, to end this pain and anguish and open a new era for reconciliation and peace, we urge the governments of both countries as follows:

1. We urge both governments to declare an end to the Korean War and open negotiations to conclude a peace treaty. The April 27th Panmunjom Declaration publicized the understanding that an end-of-war declaration drastically reduces the possibility of a new outbreak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erves as a starting point for ending all hostilities and continuing dialogue for a peace treaty. We are confident that the end of the war and the establishment of peace agreements will be the starting point for resolving a number of challenges, including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we urge the U.S. to actively support the efforts of the two Koreas to lead the way in accomplishing this.

2. We urge both governments to begin the process of mutual disarmament toward restoring trust. Despite the September 19th Pyongyang Declaration, South Korea, the U.S., and North Korea have further strengthened their hostile forces against each other and continued military exercises. The Moon Jae-in government has been increasing spending on military armaments from 5.4%

to 8.2% every year up to 2019 and South Korea's defense spending outpaces North Korea's gross domestic product.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weapons from the U.S. is also increasing. In the context of this reality,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impossible. Denuclearization cannot be achieved through unilateral pressure but can only be realized if all parties agree to a corresponding gradual disarmament. We reiterate the fact that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not the end goal but a process for peace, so the process of achieving peace should itself be peaceful. Therefore, we urge both South Korea and the U.S. to cease increasing armaments that foster hostility, and immediately suspend the SK-US joint military exercises.

3. We urge both governments to lift the sanctions on the DPRK and resume humanitarian exchanges and cooperation. Seventy years of sanctions on the DPRK have impoverished the lives of North Koreans and worsened the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History has proven that w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he U.S., actively participated in humanitarian exchanges and cooperation, the threat of war was minimized and expectations for peace and coexistence on the Korean Peninsula were maximized. Therefore, we urge both South Korea and the U.S. to lift the sanctions on North Korea as soon as possible so that emergency disaster assistance, including exchanges or cooperation for humanitarian purposes, especially COVID-19 medical assistance, can resume quickly.

4. We urge the U.S. to stop attempting to include South Korea in the Quad Alliance system. We share the view this will only strengthen the new Cold War system in the Asia-Pacific region beyond Northeast Asia and deepen the division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When the US interferes in the attempts at resolving the problem of the past history between Japan and

Korea, especially regarding human rights abuses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forced labor issues, this not only fails to improv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but furthermore, it provides no benefit for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We urge the Biden administration to adopt a peaceful leadership that contributes to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rather than obsessing over hegemonic national interests.

Peace is God's grace and blessing. But this peace can only be achieved when we are always alert and praying earnestly. We will consolidate all our efforts as agents of peace by confessing that when we let go of our hostility toward each other and share what we have in common with one another, then miracles of unity and reconciliation will be achieved and peace will come.

Action Plan

1. The churches of South Korea and the U.S. will actively participate in the “Korea Peace Appeal” campaign with the global church and civil society through July 2023,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agreement. To this end, we will organize Peacemaker Teams according to country, church, and region, in cooperation with local churches, denominations, and faith associations. During the joint international action in July of this year, leaders from the different parts of our societies in Korea and the U.S. will b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a social media photo campaign. In addition, if the COVID-19 situation improves, we will consider forming a joint campaign group to launch a Church Visitation campaign in the U.S.

2. A campaign will be carried out to stop military hostilities in order to prepare an opportunity for inter-Korean dialogue and U.S.-North Korea dialogue. In

particular, the NCCCUSA will express solidarity when NCCCK begins its intensive campaign in July for suspension of the South Korea-U.S. military exercises scheduled in August, this year.

3. The South Korean and U.S. churches will jointly conduct a "Youth Peacemaker" program to foster peace sensitivity and a spirituality of peace for the next generation of leadership. The pilot program will be held online in 2021 and occur twice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4. The Korea-U.S. Church Consultation will be regularized quadrennially starting in 2023 with the NCCCK hosting in Korea, and a working group will be created to implement the action plans between each consultation. We will also consider an exchange of peace mission co-workers to strengthen the peace building capacity of the two Councils, which will foster the civilian and 1.5 track diplomacy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5. We will push again for a Nogun-ri Healing and Reconciliation Worship Service, which was scheduled for 2020, to be held in 2022 together with U.S. veterans of the Korean War and the families of the victims. At the next consultation in 2023, the Korean and U.S. Church will jointly hold a prayer meeting to commemorate the victims of the Korean War at the DMZ.

June 25th, 2021

Participants, 7th NCCCUSA-NCCCK Consultation

Closing Remarks

Participant List

Korea

신정호 Rev. Shin Jung Ho	Moderator,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변창배 Rev. Byun Chang Bae	General Secretary, The PCK
오일영 Rev. Oh Il Young	General Secretary, The Korean Methodist Church
유홍근 Rev. You Hong Geun	Ecumenical Officer, The KMC
김창주 Rev. Kim Chang Ju	General Secretary,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장봉 Rev. Andrew JANG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인은영 Captain. In Eun Young	Director, The Salvation Army Korea Territory
나성권 Rev. Na Song Guon	Ecumenical Officer, The Anglican Church of Korea
김봉은 Rev. Gim Bong Eun	Bikdoen Church, The Korean Evangelical Church
임종훈 Fr. Lim Jong Hun	Dean of St. Nicholas Cathedra, Metropolitan Ambrosios Orthodox Metropolis of Korea Church
김경민 Mr. Kim Kyung Min	General Secretary, The National Council of YMCAs in Korea
양다은 Ms. Yang Da Eun	Secretary, The National Council of YMCAs in Korea
한미미 Ms. Han Mimi	Vice Moderator, World YWCA
최수산나 Ms. Choi Susannah	Executive Secretary, The National YWCA of Korea
하성웅 Rev. Ha Seong Ung	General Secretary, Ecumenical Youth Council in Korea
임준형 Mr. Lim Jun Hyung	Director, Korean Christians Network for World Free of Nuclear Weapons and Nuclear Power
정구도 Dr. Chung Koo Do	President, No Gun Ri Peace Foundation

서보혁 Dr. Suh Bo Hyug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이기호 Dr. Yi Ki Ho	Hanshin University
구갑우 Dr. Koo Kab Woo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정욱식 Mr. Cheong Wook Sik	Representative, Peace Network
강용규 Rev. Kang Yong-kyu	Chair, Ecumenical Relations Comm., NCCK
배현주 Rev. Bae Hyun Ju	Vice-Chair, Ecumenical Relations Comm., NCCK
김종구 Rev. Kim Jong Goo	Vice-Chair, Ecumenical Relations Comm., NCCK
한주희 Rev. Han Jue Hee	Secretary, Ecumenical Relations Comm., NCCK
정병주 Rev. Chung Byung Ju	Chair, Reconciliation & Reunification Comm., NCCK
송병구 Rev. Song Byung Koo	Vice-Chair, Reconciliation & Reunification Comm., NCCK
김희헌 Rev. Kim Hi Heon	Chair, Reunification Comm., PROK
이경호 Bishop Peter Lee Kyong Ho	Moderator, NCCK
나핵집 Rev. Ra Heak Jib	Chair, Korea Peace Appeal Campaign of the NCCK
이홍정 Rev. Lee Hong Jung	General Secretary, NCCK
신승민 Rev. Shin Seung Min	Director, Ecumenical Relations Comm., NCCK
노혜민 Rev. Roh Hye Min	Executive Secretary, RRCComm., NCCK
Rev. Kurt Esslinger	Coordinator, Ecumenical Forum Korea
박성국 Rev. Park Sung Kook	Interpreter, PROK

USA

Rev. John Dorhauer	President, United Church of Christ, USA
Mr. Jim Winkler	General Secretary, NCCCUSA
Ms. Cynthia Griffiths	NCCCUSA
Mr. Matthew Markay	Intern, NCCCUSA
Bishop Hee-Soo Jung	Wisconsin Conference, United Methodist Church
Dr. Roland Fernandes	General Secretary, GBGM, UMC
Mr. Mark W. Harrison	Director, UMC
Rev. Bruce Woodcock	East Asia & Pacific Partnership Officer, The Episcopal Church USA
Rev. Paul Tche	President, Christian Unity and Interfaith Ministry,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in the US and Canada
Rev. Levi Bautista	Assistant General Secretary for UN and International Affairs General Board of Church and Society—The UMC
Ms. Catherine Gorden	Representative for International Issues, Presbyterian Church (USA) Office of Public Witness
Rev. Unzu Lee	Regional Liaison for East Asia World Mission in the PC(USA)
Rev. Mienda Uriarte	Area Coordinator – Asia and the Pacific, PC(USA)
Ms. Susannah Stubbs	Member, Presbyterian Peace Network for Korea (PPNK)
Ms. Linda Russell	Co-convener, PPNK
Rev. Dong Woo Lee	Co-convener, PPNK
Rev. Earl Arnold	Secretary, PPNK
Dr. Derek Duncan	Area Executive for East Asia and Pacific, Global Ministries of CCDC and UCC
Rev. Kim Kyrie	The Episcopal Diocese of New York as the Missioner for Asian Ministries

Rev. Franklin Ishida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America
Mr. Daniel Jasper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Ms. Angela Kerwin	Office of Korean Affairs Director and Acting 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Ecumenical Partners

Rev. Peter Noteboom	General Secretary, The Canadian Council of Churches
Ms. Patti Talbot	Team Leader, Global Partnership Program, United Church of Canada
Mr. Peter Prove	Director of the WCC Commission of the Churches on International Affairs
Rev. Kim Jin Yang	Coordinator of Pilgrim-teams for Justice and Peace, WCC
Rev. Chris Ferguson	General Secretary,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